

국어영역

2018^판

방법은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독서 편

이성호 · 차용택 저

기출 수능 역추론

원리와 사고방법

& 실전문제



방법은 있다

표지 안쪽

수능 국어 2018^판 방법은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독서편

이성호 · 차용택 저

- 현재 학년도 기출수능문제를 싣고 풀이하여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학습 방향 제시
- 새로운 원리와 사고 방법을 문항 유형별로 제시
- 수능 주요 기출 문제를 예제로 제시하고 유형모의, 실전 문제 수록
- 수능 1등급을 넘어 만점을 위한, N수생 수준의 신유형 고난도 문제 대폭 수록
- 글의 구조와 주제를 도식화하여 한 눈에 보기로 제시
- 주제 작성 연습을 위한 빈 칸 넣기 문제 제시
- 독서와 직접 관련된 논리학(개념, 추론방식, 정의, 오류)도 제시
- 전 EBS 집필자와 공동 제작



방법은 있다

이 책을 지은이

이성호 선생님

서울 여의도고, 언남고, 양재고, 방산고를 거쳐 현재 서초고 국어과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 EBS 언어영역 출제위원
전 아이러브언어닷컴(www.iloveuno.com) 수석 출제상담위원
수능 국어 방법은있다 〈원리와 방법편〉 〈독서/논리편〉 〈현대시/고전시가편〉 집필(공저, 도서출판
방법은있다 간행)
수능 국어 만점과 3점취약점도 마물 방법은있다 집필 (공저, 도서출판 방법은있다 간행)
수능 국어 방법은있다고 풀이한 실전모의고사 집필 (공저, 도서출판 방법은있다 간행)
EBS 고교국어듣기 (공저, 한국방송공사 간행)
한국고전대표설화 집필 (편저, 관동출판사 간행) 백범 김구 집필 (현대어역저, 관동출판사 간행)
한국 수능 학습지 출제 위원 역임

차용택 선생님

서울 언남고, 신림고를 거쳐 현재 진주고등학교 국어과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 아이러브언어닷컴(www.iloveuno.com) 수석 출제상담위원
수능 국어 방법은있다 〈원리와 방법편〉 〈독서/논리편〉 〈현대시/고전시가편〉 집필(공저, 도서출판
방법은있다 간행)
수능 국어 만점과 3점취약점도 마물 방법은있다 집필 (공저, 도서출판 방법은있다 간행)
수능 국어 방법은있다고 풀이한 실전모의고사 집필 (공저, 도서출판 방법은있다 간행)
수능 링크 실전편 집필 (공저, 천재교육 간행)
대한 교과서 실전모의고사 집필 (공저, 대한 교과서 간행)
독서 평설 집필 (공저, 지학사 간행)
블랙박스 학습지 출제 위원 역임
한국 수능 학습지 출제 위원 역임



수능 국어 **방법은있다** - 독서 편

지은이 | 이성호, 차용택

이 책 파일에 대한 저작권은 지은이에게 있습니다. 이 책 파일은 구매한 개인만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이 책 파일의 체제와 내용 중
일부나 전부를 모방 또는 복사, 전재할 수 없습니다.

학습 대책 -

주요 작가의 대표작을
가능한 많이 읽어 둔다.
참신한 내용의 읽기 자료집을
선정하여 다양한 글을 읽어 둔다.
글을 치밀하게 읽는 습관을 길러 둔다.

국어 참고서든 수능능력시험을 대비한 **시중 참고서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구절이다**. 문제의 유형은 여러 가지이지만 학습 대책은 똑 같이 제시되어 있다. 많은 독서는 언어를 공부하려는 학생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책을 많이 읽으라는 말은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 그런데 너무도 **당연한 말은 너무도 황당한 말이** 되기 십상이다. **문제를 풀어야 하는 구체적 상황에서 책을 많이 읽어 두라는 말은 학생들을 당황하게 만들 뿐인 것이다**.

수능 시험의 출제 원칙은 밝혀져 있다. (학교에서도 교과서 지문을 이용하지만 역시 유형은 수능식으로 출제하고 있다.) 어휘력을 묻고, 사실적 사고 능력과 추리 상상적 사고 능력, 그리고 논리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를 내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야 어휘력이 늘고, 어떤 연습을 해야 사실적 사고 능력과 추리 상상적 능력이 향상되며,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한 길잡이가 없다는 것이다. 아니 있기는 있다. 평소에 책을 많이 읽어두라는 공자님 말씀.

학생들 입장에서 ‘이 문제는 나의 사실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낸 문제이구나’라고 아는 것보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것일 것이다**. 언어에 관한 문제는 수능 시험이든 학교에서 치르는 중간고사든 그 유형은 유사하다. 특히 암기력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강조되는 **7차교육과정**에서 국어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문제도 결국 수능식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어느 지문이 사용되었든 포괄적 사고 방법을 알면 문제는 풀 수 있게 된다. 교실에서, 일등부터 꼴찌까지의 학생들과 수업을 하며, 문제의 정답에 접근하는 **사고 방법을 찾으려 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여 책으로 엮어 보았다**.

“학생들에게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없을까?” 하는 서로의 고민을 확인하고 ‘방법’을 찾아 모아 보자고 의기투합한 것이 96년 가을이니, 참 많은 시간이 흘렀다. 함께 근무한 1년 반은 매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였고, 근무지가 달라진 1년 동안에는 통신을 주고받으며 자료를 모으고, 각자의 교실에서 적용해 보고, 그 결과를 평가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지면을 만들어 갔다.

- 초판 머리말의 변형

완전 개정 4판에 붙여

2014년 개정 초판 이래 ‘원리와 사고 방법’에서 **놀라운 활용력을 보인 ‘방법은 있다’**를 새로운 입시 체제에 맞춰 **완전 개정 3판을 올립니다**. **개정교육과정을 포함한 모든 최신 원리를 망라하려 했고, 연습해 볼 수 있는 문제를 많이 제시해 달라는 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그 양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또한 **각 항목마다 구체적인 작품의 예를 제시**하고 문학작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설을 강화하고 **이해력 높이기 항목**을 제시하느라 한 권으로는 한계가 있어 네 권의 책으로 분철합니다. 곧 **독서, 문법/화법/작문, 현대시/고전시각, 현대·고전 소설/수필/희곡/시나리오** 등의 네 편입니다. 감히 결정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국어 영역 **독서편**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인 ‘방법은 있다’를 보다 구체화시켜 제시하고 이를 적용하는 신유형 모의 문제를 많이 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년도 기출 수능 문제**를 싣고 풀이하였으며 그 유형도 분석하여 **학습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지문마다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를 넣어 이 책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주제의 형성 원리, 조직의 과정, 논지 전개 방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방법은 있다’에 관심을 갖고 학습하면 틀림없이 좋은 성과가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리와 방법을 더 많이 알려주고 싶은

지은이 이성호, 차용택 올림



제1부 독서

OE 2017학년도 수학능력시험 독서 문제와 해설 및 유형 분석 10

1. 논지 전개 · 진술 방식과 주제 28

유형모의1-1 진화론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두려움, 스티븐 제이 굴드	59
유형모의1-2 민주주의 한국의 청사진, 김태길	63
유형모의1-3 옛 그림의 원근법, 오주석	67
유형모의1-4 한국 전통 음악의 미의식, 현행복	70
유형모의1-5 세상의 모든 것은 무너진다, 헨리 페트로스키	74
유형모의1-6 토마스 쿤의 과학 혁명의 구조, 임영태	77

2. 문단의 성격과 관계 81

유형모의2-1 사람과 파리는 닮은꼴, 조홍섭	97
유형모의2-2 한국 근 · 현대사 역사학의 흐름, 한영우	100
유형모의2-3 가이아 - 사이버네틱스, 러브록	103

3. 어휘의 갈래 105

유형모의3-1 도덕성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 손봉호	110
유형모의3-2 국어의 순화, 김석득	113

4. 어휘의 문맥적 · 함축적 의미와 동일한 의미의 관용구나 속담, 또는 성어 116

유형모의4-1 과학과 윤리, 김용정	132
유형모의4-2 말, 세상을 그려 낸 그림, 심재기	135
유형모의4-3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 F. 카프라	139
유형모의4-4 북한의 말과 글, 남성우	143





5. 제시된 내용의 사실적 파악 148

유형모의5-1 현대 미술의 이해, 강미정	169
유형모의5-2 양성성에 관하여, 정진경	173
유형모의5-3 국사 교육이 죽어간다, 한영우	176
유형모의5-4 현대 사회의 의의, 고영복	180

6. 제시되지 않은 내용 미루어 알기 184

유형모의6-1 전통문화와 대중 문화, 이상희	210
유형모의6-2 여우와 신포도, 이어령	214

7. 관점 · 입장 · 태도 · 의도 알기 219

유형모의7-1 맨 처음 생명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을까?, 로버트 사피로	233
유형모의7-2 무장동학당 포고문, 전봉준	236

8. 제시된 글에 대한 비판 240

유형모의8-1 한국을 국제 물류 거점으로, 송희연	252
유형모의8-2 사람의 어제, 오늘 내일, 레원 리키	257
유형모의8-3 한자를 쓰는 것이 왜 문제인가, 송영상	261

9.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266

유형모의9-1 불평등의 경제학, 이정우	301
유형모의9-2 박수근의 예술, 박용숙	305
유형모의9-3 왜 현대인은 병에 잘 걸리는가, 이인식	309





제2부 논 리

1. 개념 314

유형모의1-1 정보 사회와 인간 생활, 정범모	324
유형모의1-2 마음과 영혼 그리고 인간 과학, 박성룡	328

2. 정의 332

유형모의2-1 네트로피 문명, 장희익	338
유형모의2-2 핫미디어와 쿨미디어, 마샬 맥루한	341

3. 추론 방식 344

유형모의3-1 권력의 이동, 앨빈 토플러	354
유형모의3-2 러시아와는 학제적 접근이 최적, 김영식	359

4. 전제 · 논거 · 논박 및 결론 363

유형모의4-1 한반도의 지형적 특징, 노웅희 · 박병석	378
유형모의4-2 언어와 민족 문화, 강신항	381
유형모의4-3 과학 윤리 · 생명 윤리, 송상용	385

5. 오류 388

유형모의5-1 엽기 신드롬을 부채질하는 것, 이인식	398
유형모의5-2 치도약론(治道約論), 김옥균	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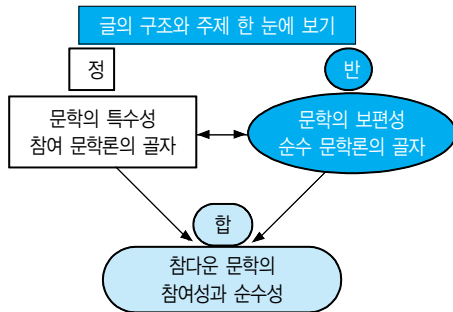
제1회 메밀꽃 필 무렵의 경제학, 박찬선	408
제2회 검의 고수엔 칼로 덤비지 말라, 송병락	412
제3회 지능, 남녀 따라 차이가 있나, 과학 동아	416
제4회 전통의 이해, 김태길	420
제5회 말과 생각, 하웅	424
제6회 북학의, 박제가	428
제7회 문학적 상상력과 사회학적 상상력, 전영태	433
제8회 한국 연극과 마당극, 극예술연구회	438
제9회 환경 용어 남발하는 상품 광고, 이재란	443
제10회 나노기술이란 무엇인가, 뉴턴코리아 메가진	447

문제가 끝난 다음 쪽에 **방법은 있다**로 풀이한 **해설과 정답**이 있습니다.

이 책의 구성을 알면 학습 능률이 **쭉쭉쭉쭉쭉** 올라갑니다.

☞ 2016학년도 수능능력시험 산문문학 문제와 해설 및 유형 분석 : 현재 학년도 기출 수능 문제를 싣고 풀이하였으며 그 유형도 분석하여 학습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가. 모든 지문의 해설



1.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모든 지문의 구조와 주제를 도식화하여 제시함으로써 글의 구조와 논지 전개 방식, 주제가 형성되는 원리를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문단의 주제를 빈 칸으로 두어 주제 작성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어휘·클리닉

평소 어휘력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수험생을 위하여 수능이나 지문 이해에 꼭 필요한 어휘의 의미를 제시하였습니다.

나. 제1부 독서 · 제2부 논리

- 1 문항의 이해와 출제 경향
- 2 원리는 이렇다
- 3 방법은 있다

1. 유형화된 문항의 의미를 설명하고 출제 경향을 제시했습니다. 가볍게 읽고 넘어 갑시다.
2. 문항과 관련된 최신 원리를 망라하여 제시함으로써 수능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에도 도움이 되게 하였습니다. 정독하기 바랍니다.
3. 문항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이고 활용성이 뛰어난 사고 방법을 꼭 익혀둡시다.
4. [예제]
기출 수능에서 꼭 알아둬야 할 유형 문제를 엄선하여 제시하고 방법은있다고 풀이하였습니다.
5. [유형모의]
유형 테마 문항을 반드시 실어 원리와 사고 방법을 익힐 수 있게 하였으며 실전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신경향·고난도 문항도 대폭 수록하였습니다.



다. 제3부 독서 · 논리 종합 실천모의

독서와 논리를 종합하여 신경향·고난도 문항을 대폭 수록함으로써 앞에서 배운 새로운 원리와 사고 방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나아가 어떤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분석적 글읽기의 방법

다음은 글을 올바르게 읽는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글뿐만 아니라 문학을 읽고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며, 쓰기 영역을 해결하는 데도 좋은 지침이 되므로 각 단원에 들어가기에 앞서 반드시 읽고 실제로 적용해 봅시다.

1단계 무엇이든 관한 글인가를 발견하기 위한 규칙들

- 1. 글의 종류와 제재에 따라 이론적인 글과 실천적인 글로 분류하라.
- 2. 글 전체가 무엇이든 관한 것인지를 파악하라.(가주제)
- 3. 필자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를 규정하라.(주제)

New Theory & Thinking Method

제1부

독서

2단계 글의 내용을 해석하기 위한 규칙들

- 4. 필자가 사용한 기본 단어들을 해석하여 필자의 개념을 따르라.
- 5. 중요한 문장들을 찾아내고 필자의 주된 요지를 파악하라.
- 6. 논리적 관련이 있는 문장들을 찾아내고 필자의 논증을 발견하거나, 또는 그 문장들로부터 논증을 구성하라.
- 7. 필자가 해결한 문제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판별하라.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필자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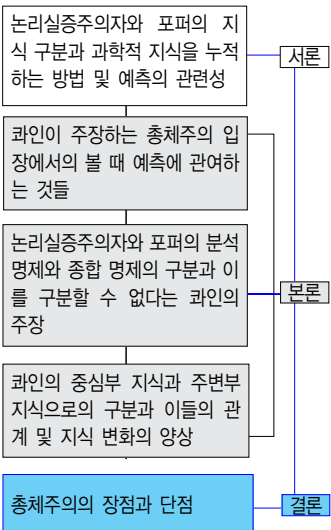
3단계 지식을 전달해 주는 글을 비평하기 위한 규칙들

- A. 올바른 비평을 위한 기준
 - 8. 필자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 중 근거가 부족하거나 부적합한 것을 비판하라.
 - 9. 필자가 잘 모르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지적하라.
 - 10. 비논리적인 것(오류)을 지적하라.
 - 11. 논거가 없거나 부족한 주장, 분석이나 설명이 불충분한 것을 지적하라.
- B. 올바른 비평을 위한 유의 사항
 - 12. 글을 완전히 분석하고 해석하여 이해한 다음 찬성, 반대 등의 태도를 표명하라.
 - 13. 주요 논점에서 벗어나 지엽적인 것에 대하여 반론을 하지 말라.
 - 14. 비평적인 판단을 내리려면 충분한 근거를 들고, 지식과 의견을 확실히 구별하라.

2017학년도 수학능력시험 독서 문제와 해설 및 유형 분석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지식 구분과 과학적 지식을 누적하는 방법 및 예측의 관련성을 제시하고 이와 다른 견해를 지닌 과인의 총체주의 입장을 대조해 총체주의의 장점과 단점을 밝히고 있다.

어휘·클리닉

- 순환론 : 논증되어야 할 명제를 논증의 근거로 하는 잘못된 논증. 논점 절취의 허위의 하나로, 논증하여야 하는 결론을 잠재적·현재적으로 논증의 전제로 하는 논증 방법이다. 그러므로 결론의 진리와 전제의 진리가 서로 의존하여 논증의 형식을 가지고는 있으나 실제로 논증되지는 않는다. ‘그는 정직하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을 속이지 않기 때문이다.’와 같은 따위이다.
- 상정하다 : 어떤 정황을 가정적으로 생각하여 단정하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그중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주장한다.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인은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만 가지고는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다. 먼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존의 지식과 M에 열을 가했다는 조건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과인은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다. 그러나 과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은 동어 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처럼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이다. 그런데 후자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해서,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에 다시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되어,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순환론에 빠진다. 따라서 과인은 종합 명제와 구분되는 분석 명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과인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상정한다.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 달리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그러나 이 둘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있어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는 쪽을 선택하겠지만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하여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든 그와 같은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총체주의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다.”와 같은 논리학의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 명제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과 ㉡이 모두 ‘아니요’라고 답변할 질문은?

- ① 과학적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되는가?
- ②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가?
- ③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 되는 지식이 존재하는가?
- ④ 예측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
- ⑤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종류가 다른 것인가?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두 주장과 공통적으로 상반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론 있다면 정답 찾기 ㉠은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라는 구절에서 보듯 가설을 경험을 통해 시험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은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한다.’라는 구절에서 보듯 가설을 경험을 통해 시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가란 물음에 아니요라 답해야 한다.

● 오답 비루기 ㉠ ㉡은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한다.’라는 구절에서 지식이 개별적으로 누적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예라고 답할 것이지만 ㉡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아니요라고 답할 것이다. ㉢ ㉠은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라는 구절로 보아 예라고 답할 것이다. ㉣ ㉡은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이라는 구절로 보아 예라고 답할 것이다. ㉤ ㉠은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라는 구절로 보아 예라고 답할 것이다.

✓ 애답 ㉡

17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포퍼가 제시한 과학적 방법에 따르면, 예측이 틀리지 않았을 경우보다는 맞을 경우에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지식으로 인정된다.
- ② 논리실증주의자에 따르면,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가 분석 명제인 것은 총각을 한 명 한 명 조사해 보니 모두 미혼의 성인 남성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 ③ 콰인은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는 지식이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한다.
- ④ 콰인은 분석 명제가 무엇인지는 동의적 표현이란 무엇인지에 의존하고, 다시 이는 필연성 개념에,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한다고 본다.
- ⑤ 콰인은 어떤 명제에, 의미가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대체할 경우 그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면, 그 명제는 동어 반복 명제라고 본다.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구분에 따르면 ~ 동어 반복 명제와, ~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이다. 그런데 후자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해서,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에 다시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되어,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순환론에 빠진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④의 내용은 적절하다.

● **오답 바꾸기** ①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한다.’라는 내용에 어긋난다. ②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라는 내용에 어긋난다. ③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다. 그러나 과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라는 내용에 어긋난다. ⑤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해서,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에 다시 의존하게 된다.”라는 구절에서 과인은 동어 반복 명제가 성립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 **해답** ④

18 윗글을 바탕으로 총체주의의 입장에서 ㉠~㉢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그것이 ㉠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못하겠군.
- ② ㉠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의 어느 부분을 수정하느냐는 실용적 필요에 따라 달라지겠군.
- ③ ㉠는 ㉠와 ㉢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고 하겠군.
- ④ ㉠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는 ㉢의 주변부에서 경험과 직접 충돌한 것이라고 하겠군.
- ⑤ ㉠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를 수정하는 방법으로는 ㉠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군.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이론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든지 그와 같은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구절로 보면 ⑥가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언제든지 그와 같은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그 가설(⑥)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바꾸기 ① '먼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존의 지식과 M에 열을 가했다는 조건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② '그런데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는 쪽을 선택하겠지만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③ '과인은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한다.'라는 구절에서 '시험의 대상'이 예측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④ '과인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상정한다.'라는 구절과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는 쪽을 선택하겠지만'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 해답 ⑤

19 윗글의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이 경험과 충돌하더라도 그 충돌 때문에 가설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
- ② 논리학 지식이나 수학적 지식이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위치한다고 해서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 ③ 전체 지식은 어떤 결정적인 반박일지라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 대상을 주변부 지식으로 한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 ④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주변부 지식도 수정해야 하겠지만, 주변부 지식을 수정한다고 해서 중심부 지식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해도 중심부 지식 중에는 주변부 지식들과 종류가 다른 지식이 존재한다.

● **문항 분석** 제시된 주장에 대하여 비평한 것으로 객관적이고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도록 정답 찾기** “그러나 총체주의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다.’와 같은 논리학의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 명제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구절에서 필자는 총체주의의 문제점을 비평하고 있는데 이는 ‘과인은 종합 명제와 구분되는 분석 명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라는 구절에 제시된 과인의 분석 명제에 대한 주장을 논박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필자의 주장을 과인의 주장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있어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와 관련시켜 보면 필자는 ‘중심부 지식 중에는 주변부 지식들과 종류가 다른 지식’ 즉 분석 명제가 ‘존재한다’고 비평하고 있는 것이다.

● **오답 배리기** ① 총체주의자인 과인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이다. ② 총체주의의 주장이다. ③ 총체주의도 중심부 지식의 수정을 인정하고 있다. ④ 필자가 제시한 총체주의의 문제점이 아니다.

✓ **해답** ⑤

20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잇따른다 ② 다다른다 ③ 봉착한다
④ 회귀한다 ⑤ 기인한다

● **문항 분석** 제시된 구절의 문맥적 의미와 동일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도록 정답 찾기** ‘따라서 과인은 종합 명제와 구분되는 분석 명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라는 구절에서 ‘결론에 도달한다’는 ‘새로운 이론에 이른다’ 혹은 ‘새로운 이론에 다다른다’란 의미이다.

● **오답 배리기** ① ‘어떤 사건이나 행동 따위가 이어 발생하다’란 의미로 새로운 이론과 어울리지 않는다. ③ ‘어떤 처지나 상태에 부닥치다’란 의미로 새로운 이론과 어울리지 않는다. ④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돌아가다’란 의미로 새로운 이론과 어울리지 않는다. ⑤ ‘어떠한 것에 원인을 두다’란 의미로 새로운 이론과 어울리지 않는다.

✓ **해답** ②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비섭유소만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인간과 비섭유소와 섭유소를 모두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반추 동물

머리말

피브로박터속시노젠의 생리적 특성을 반추 동물이 활용하는 방법

본문

스트렙토코쿠스보비스의 생리적 특성을 반추 동물이 활용하는 방법

스트렙토코쿠스보비스의 과도한 생장이 반추 동물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보충

- ▶ 인간과 다른 반추 동물이 섭유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어휘·클리닉

- 대사산물 : 물질대사에 관여하거나 물질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
- 소진되다 : 점점 줄어들어 다 없어지다.

탄수화물은 사람을 비롯한 동물이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에너지원이다. 탄수화물은 섭유소와 비섭유소로 구분된다. 사람은 체내에서 합성한 효소를 이용하여 곡류의 녹말과 같은 비섭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를 소장에서 흡수하여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반면, 사람은 풀이나 채소의 주성분인 셀룰로스와 같은 섭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므로, 섭유소를 소장에서 이용하지 못한다. ㉠소, 양, 사슴과 같은 반추 동물도 섭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비섭유소와 섭유소를 모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며 살아간다.

위(胃)가 넷으로 나누어진 반추 동물의 첫째 위인 반추위에는 여러 종류의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반추 동물의 반추위에는 산소가 없는데, 이 환경에서 왕성하게 성장하는 반추위 미생물들은 다양한 생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중 ㉡피브로박터속시노젠(F)은 섭유소를 분해하는 대표적인 미생물이다. 식물체에서 셀룰로스는 그것을 둘러싼 다른 물질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F가 가진 효소 복합체는 이 구조를 끊어 셀룰로스를 노출시킨 후 이를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F는 이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생존을 유지하고 개체 수를 늘림으로써 성장한다. 이런 대사 과정에서 아세트산, 숙신산 등이 대사산물로 발생하고 이를 자신의 세포 외부로 배출한다. 반추위에서 미생물들이 생성한 아세트산은 반추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주로 이용되고 체지방을 합성하는 데에도 쓰인다. 한편 반추위에서 ㉢숙신산은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생성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소진된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프로피온산은 반추 동물이 간(肝)에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대사 과정에서 주요 재료로 이용된다.

반추위에는 비섭유소인 녹말을 분해하는 ㉣스트렙토코쿠스보비스(S)도 서식한다. 이 미생물은 반추 동물이 섭취한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이때 S는 자신의 세포 내의 산성도에 따라 세포 외부로 배출하는 대사산물이 달라진다. 산성도를 알려 주는 수소 이온 농도 지수(pH)가 7.0 정도로 중성이고 성장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아세트산, 에탄올 등이 대사산물로 배출된다. 반면 산성도가 높아져 pH가 6.0 이하로 떨어지거나 녹말의 양이 충분하여 성장 속도가 빠를 때는 ㉤젖산이 대사산물로 배출된다. 반추위에서 젖산은 반추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반추 동물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이용되거나 아세트산 또는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그런데 S의 과도한 생장이 반추 동물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다. 반추 동물이 짧은 시간에 과도한 양의 비섭유소를 섭취하면 S의 개체 수가 급격히 늘고 과도한 양의 젖산이 배출되어 반추위의 산성도가 높아진다. 이에 따라 산성의 환경에서 왕성히 성장하며 항상 젖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락토바실러스루미니스(L)

와 같은 젖산 생성 미생물들의 생장이 증가하며 다량의 젖산을 배출하기 시작한다. F를 비롯한 혐유소 분해 미생물들은 자신의 세포 내부의 pH를 중성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는데, 젖산 농도의 증가로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낮아지면 자신의 세포 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므로 생장이 감소한다. 만일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5.8 이하로 떨어지면 에너지가 소진되어 생장을 멈추고 사멸하는 단계로 접어든다. 이와 달리 S와 L은 상대적으로 산성에 견디는 정도가 강해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5.5 정도까지 떨어지더라도 이에 맞춰 자신의 세포 내부의 pH를 낮출 수 있어 자신의 에너지를 세포 내부의 pH를 유지하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고 생장을 지속하는 데 사용한다. 그러나 S도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그 이하로 더 떨어지면 생장을 멈추고 사멸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산성에 더 강한 L을 비롯한 젖산 생성 미생물들이 반추위 미생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반추위의 pH가 5.0 이하가 되는 급성 반추위 산성증이 발병한다.

33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혐유소는 사람의 소장에서 포도당의 공급원으로 사용된다.
- ② 반추 동물의 세포에서 합성한 효소는 셀룰로스를 분해한다.
- ③ 반추위 미생물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생장을 멈추고 사멸한다.
- ④ 반추 동물의 과도한 혐유소 섭취는 급성 반추위 산성증을 유발한다.
- ⑤ 피브로박터속시노젠(F)은 자신의 세포 내에서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성장한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⑤는 'F는 이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생존을 유지하고 개체 수를 늘림으로써 성장한다'라는 내용과 일치한다.

● **오답 배리기** ① '사람은 풀이나 채소의 주성분인 셀룰로스와 같은 혐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므로, 혐유소를 소장에서 이용하지 못한다.'라는 내용과 어긋난다. ② '소, 양, 사슴과 같은 반추 동물도 혐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이라는 내용과 어긋난다. ③ '반추 동물의 반추위에는 산소가 없는데, 이 환경에서 왕성하게 성장하는 반추위 미생물들은 다양한 생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과 어긋난다. ④ 넷째 문단에서 급성 반추위 산성증의 발생 경위를 살펴보면 '반추 동물이 짧은 시간에 과도한 양의 비혐유소를 섭취 → S의 개체 수가 급격히 늘고 과도한 양의 젖산이 배출되어 반추위의 산성도가 높아짐 → 락토바실러스루미니스(L)와 같은 젖산 생성 미생물들의 생장이 증가하며 다량의 젖산을 배출하기 시작함 → S도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5.5 이하로 더 떨어지면 생장을 멈추고 사멸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산성에 더 강한 L을 비롯한 젖산 생성 미생물들이 반추위 미생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됨 → 반추위의 pH가 5.0 이하가 되는 급성 반추위 산성증이 발병'이라는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 결국 과도한 섬유소의 섭취가 아니라 비섬유소의 섭취가 급성 반추위 산성증의 원인임을 알 수 있다.

✓ 해답 ⑤

34 읽글로 볼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는 모두 급성 반추위 산성증에 걸린 반추 동물의 반추위에서는 생장하지 못하겠군.
- ② ㉠과 ㉡는 모두 반추위에서 반추 동물의 체지방을 합성하는 물질을 생성할 수 있겠군.
- ③ 반추위의 pH가 6.0일 때, ㉠은 ㉢보다 자신의 세포 내의 산성도를 유지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겠군.
- ④ ㉡와 ㉢는 모두 반추위의 산성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대사 산물을 배출하겠군.
- ⑤ 반추위에서 녹말의 양과 ㉡의 생장이 증가할수록, ㉠의 생장은 감소하고 ㉢의 생장은 증가하겠군.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론 있다면 정답 찾기 '이에 따라 산성의 환경에서 왕성히 성장하며 항상 젖산을 대사 산물로 배출하는 락토바실러스루미니스(L)와 같은 젖산 생성 미생물들의 생장이 증가하며 다량의 젖산을 배출하기 시작한다.'라는 구절에서 ㉢는 항상 젖산만 대사산물로 배출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비루기 ① 넷째 문단에서 ㉠은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5.8 이하로 떨어지면 에너지가 소진되어 생장을 멈추고 사멸하는 단계로 접어들다'고 하였고 ㉡는 pH가 5.5 이하로 떨어지면 사멸의 단계로 접어들다'고 하였는데 급성 반추위 산성증은 pH가 5.0 이하가 될 때 발생하므로 적절하다. ② ㉠과 관련된 '반추위에서 미생물들이 생성한 아세트산은 반추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주로 이용되고 체지방을 합성하는 데에도 쓰인다.'라는 구절과 ㉡도 젖산을 배출해 아세트산을 배출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쓰인다고 한 내용으로 보아 적절하다. ③ ㉠과 달리 S와 L은 상대적으로 산성에 견디는 정도가 강해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5.5 정도까지 떨어지더라도 이에 맞춰 자신의 세포 내부의 pH를 낮출 수 있어 자신의 에너지를 세포 내부의 pH를 유지하는 데 거의 사용하지 않고 생장을 지속하는 데 사용한다.'라는 구절에서 F가 산성에 가장 약해 pH가 6.0일 때 자신의 세포 내의 산성도를 유지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산성도가 높아져 pH가 6.0 이하로 떨어지거나 녹말의 양이 충분하여 생장 속도가 빠를 때는 젖산이 대사산물로 배출된다.'라는 구절로 보면 반추위에서 녹말의 양과 ㉡의 생장이 증가할수록 젖산의 농도가 높아져 산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 산성에 약해 생장이 감소하고 산성에 강한 ㉢는 생장이 증가하다.

✓ 해답 ④

35 윗글을 바탕으로 ㉠이 가능한 이유를 진술한다고 할 때, <보기>의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반추 동물이 섭취한 섬유소와 비섬유소는 반추위에서 (㉡), 이를 이용하여 성장하는 (㉢)은 반추 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 ① ㉡ : 반추위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되고
 ㉢ : 반추위 미생물이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한 대사산물
- ② ㉡ : 반추위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되고
 ㉢ : 반추위 미생물이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한 포도당
- ③ ㉡ : 반추위 미생물에 의해 합성된 포도당이 되고
 ㉢ : 반추 동물이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한 포도당
- ④ ㉡ : 반추위 미생물에 의해 합성된 포도당이 되고
 ㉢ : 반추위 미생물이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한 대사산물
- ⑤ ㉡ : 반추위 미생물에 의해 합성된 포도당이 되고
 ㉢ : 반추위 미생물이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한 포도당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생략된 논리적 이유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반추 동물은 인간과 같이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이들이 섭취한 녹말과 섬유소는 반추위에서 성장하는 미생물 F, S, L 등의 에너지원이 되고 이 미생물들이 배출하는 대사산물 아세트산, 젖산 등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해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①이 적절하다.

● 오답 비루기 ②, ③, ④, ⑤ 모두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에서 제시한 글 전체의 내용과 어긋난다.

✓ 해답 ①

36 윗글로 볼 때, 반추위 미생물에서 배출되는 **숙신산**과 **젖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숙신산이 많이 배출될수록 반추 동물의 간에서 합성되는 포도당의 양도 늘어난다.
- ② 젖산은 반추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반추 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
- ③ 숙신산과 젖산은 반추위가 산성일 때보다 중성일 때 더 많이 배출된다.
- ④ 숙신산과 젖산은 반추위 미생물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생성된다.
- ⑤ 숙신산과 젖산은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F의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것이 숙신산이며 F는 '만일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5.8 이하로 떨어지면 에너지가 소진되어 성장을 멈추고 사멸하는 단계로 접어들다.'고 하였으므로 산성일 때보다 중성일 때 숙신산은 보다 많이 배출되나 S는 '산성도가 높아져 pH가 6.0 이하로 떨어지면 젖산을 배출하고 또 산성도가 높아지면 젖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L도 생장이 증가되므로 중성일 때보다는 산성일 때 젖산이 더 많이 배출된다.'

● **오답 비루기** ① '숙신산은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생성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소진된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프로피온산은 반추 동물이 간(肝)에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대사 과정에서 주요 재료로 이용된다.'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② '반추위에서 젖산은 반추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반추 동물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이용되거나'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④ F의 '대사 과정에서 아세트산, 숙신산 등이 대사산물로 발생하고'라는 내용과 S와 L의 대사 과정에서 배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 ⑤ F와 관련된 '이 과정에서 생성된 프로피온산은 반추 동물이 간(肝)에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대사 과정에서 주요 재료로 이용된다.'라는 구절과 S와 관련된 '반추위에서 젖산은 반추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반추 동물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이용되거나 아세트산 또는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 **해답**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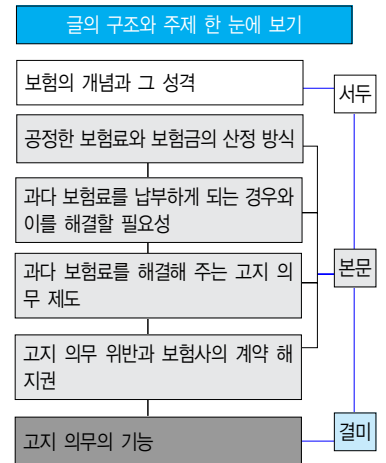
[37~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은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된다. 특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발생된 사고를 바탕으로 그 확률을 예측한다면 관찰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실제 사고 발생 확률에 근접하게 된다. 본래 보험 가입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데 있으므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일치해야 하며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보험료 / 보험금)을 보험료율이라 하는데,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적게 된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

물론 현실에서 보험사는 영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한다. 그런데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진 위험의 정도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알려 주지 않는 한,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 개개인이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 발생 확률이 비슷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위험 공동체에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입하게 되면,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져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이 증가한다. 보험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구성원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데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 의무**는 이러한 수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이다.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보험 가입



● 보험료의 개념과 그 성격을 설명하고 공정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을 밝힌 후 중요한 개념인 고지 의무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어휘·클리닉

- 구현되다 : 어떤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난다.
- 해지하다 : 계약 당사자 한쪽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계약에 기초한 법률관계를 말소하다.
- 전가되다 : 잘못이나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썩워지다.

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고지 의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이를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보험 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상법은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보험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없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권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가능하다. 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사가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㉔배제된다. 이는 보험 가입자의 잘못보다 보험사의 잘못에 더 책임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양자의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보험 가입자가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장기간 놓여 있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을 때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다.

보험에서 고지 의무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당하게 ㉔전가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이로써 사고의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고자 하는 보험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3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보험 계약에서 보험사가 준수해야 할 법률 규정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다.
- ② 보험사의 보험 상품 판매 전략에 내재된 경제학적 원리와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공정한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와 보험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법적 의무를 살피고 있다.
- ④ 보험금 지급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의 원인을 나열한 후 경제적 해결책과 법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 ⑤ 보험 상품의 거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법률 조항의 문제점을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글 전체의 주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우선 각 문단의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단 : 보험의 개념과 그 성격. 둘째 문단 : 공정한 보험료와 보험금의 산정 방식. 셋째 문단 : 과다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와 이를 해결할 필요성. 넷째 문단 : 과다 보험료를 해결해 주는 고지 의무 제도. 다섯째 문단 : 고지 의무 위반과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 여섯째 문단 : 고지 의무의 기능. 이로 보아 윗글 전체의 주제는 보험의 개념과 성격 및 공정한 보험료와 보험금의 산정 방식과 과다 보험료 방지를 위한 고지 제도와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해결법이라 할 수 있다.

● 오답 비루기 ①, ②, ④, ⑤ 모두 방법은있다로 정답 찾기에서 풀이한 글 전체의 주제를 반영하지 못한다.

✓ 해답 ③

38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보험사가 청약을 하고 보험 가입자가 승낙해야 보험 계약이 해지된다.
- ②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보다 보험금 총액이 더 많아야 공정한 보험이 된다.
- ③ 보험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은 동일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 ④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알린 중요한 사항을 근거로 보험사는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 ⑤ 우리 상법은 보험 가입자보다 보험사의 잘못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라는 구절에서 ‘승낙을 결정한다’는 것은 승낙과 거절을 결정한다는 의미가 되므로 ‘보험사는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 오답 비루기 ① ‘보험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없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권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가능하다.’라는 구절의 내용과 어긋난다. ②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일치해야 하며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라는 구절의 내용과 어긋난다. ③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라는 구절의 내용과 어긋난다. ⑤ “보험 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상법은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라는 구절을 보면 보험 가입자의 잘못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해답 ④

39 [가]를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사고 발생 확률이 각각 0.1과 0.2로 고정되어 있는 위험 공동체 A와 B가 있다고 가정한다. A와 B에 모두 공정한 보험이 항상 적용된다고 할 때, 각 구성원이 납부할 보험료와 사고 발생 시 지급받을 보험금을 산정하려고 한다.

단, 동일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끼리는 납부하는 보험료가 같고, 지급받는 보험금이 같다. 보험료는 한꺼번에 모두 납부한다.

- ① A에서 보험료를 두 배로 높이면 보험금은 두 배가 되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변하지 않는다.
- ② B에서 보험금을 두 배로 높이면 보험료는 변하지 않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두 배가 된다.
- ③ A에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B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서로 같다.
- ④ A와 B에서의 보험금이 서로 같다면 A에서의 보험료는 B에서의 보험료의 두 배이다.
- ⑤ A와 B에서의 보험료가 서로 같다면 A와 B에서의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서로 같다.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일치해야 하며’라는 구절로 볼 때 A와 B에서의 보험료가 서로 같다면 A와 B에서의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서로 같아야 한다. 이는 사고 발생 확률이 0.1과 0.2로 각각 다르더라도 동률로 취급하는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 예컨대 사고 발생 확률이 0.2 이하에서는 보험료를 보험금의 20%로 한다는 계약 조건이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 **오답 비루기** 우선 조건을 동일하게 설정해서 수치적으로 해결해 보자. 화재가 발생할 때 A, B의 보험금을 100만원으로 한다고 가정해 보자. ① A의 보험료는 $100 \times 0.1 = 10$ 인데 이를 두 배로 높이면 20이 된다.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므로 $0.1 \times 100 = 10$ 으로 변함이 없다. 따라서 보험금은 20을 내어도 10을 낼 때와 같으므로 절반으로 줄어든다. ② B에서 보험금을 두 배로 높이면 보험료는 $200 \times 0.2 = 40$ 으로 되어 두 배로 늘고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0.2 \times 200 = 40$ 으로 되어 두 배가 된다. ③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라는 구절로 보아 A, B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각각 0.1과 0.2로 되어 서로 다르다. ④ A의 보험료는 $100 \times 0.1 = 10$ 인데 B에서의 보험료는 $100 \times 0.2 = 20$ 이어서 B의 절반이 된다.

✓ **해답** ⑤

40 윗글의 **고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지 의무를 위반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 ②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 ③ 보험 계약 과정에서 보험사가 가입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드는 어려움을 줄여 준다.
- ④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에서 기인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법적 장치이다.
- ⑤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사가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구절로 보면 고지 의무를 위반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 오답 바꾸기

② 고지 의무와 관련된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③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라는 구절에서 수단으로써 고지 의무를 활용하므로 적절하다. ④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데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라는 구절에서 수단이 고지 의무를 나타내므로 적절하다. ⑤ ‘고지 의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이를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 해답 ①

41 읽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검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보험사 A는 보험 가입자 B에게 보험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한 후, B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보험금 반환을 청구했다.

- ①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A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보험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 ②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A는 보험금을 이미 지급했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③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고 B 또한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 A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④ B가 고지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다면 A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 ⑤ B가 자신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보험 사고가 발생한 후 A에게 즉시 알렸다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원리를 다른 상황에 적용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대로 정답 찾기

본문의 “그러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을 때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라는 원리를 적용해 보면 B가 고지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다면 A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당연히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 오답 바꾸기

①, ② 둘 다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권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가능하다. 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구절의 원리와 어긋난다. ③ '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배제된다.'라는 원리를 적용해 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⑤ 고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면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는 '보험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없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권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가능하다. 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원리에 어긋난다.

✓ 해답 ④

42 ㉠~㉢를 사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지난해의 이익과 손실을 대비해 올해 예산을 세웠다.
- ② ㉡ :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③ ㉢ : 임금이 인상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
- ④ ㉣ : 이번 실험이 실패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 ⑤ ㉤ : 그는 자신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문맥적 의미를 잘못 활용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도록 정답 찾기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다.'라는 구절에서 대비는 '미리 준비함'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무엇에 대비하다' 형태의 문형이다. 그러나 '지난해의 이익과 손실을 대비해 올해 예산을 세웠다.'라는 구절에서 대비는 '서로 맞대어 비교함'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무엇과 무엇을 대비하다' 형태의 문형이다. 두 문형의 차이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오답 비루기 ② 두 문장에서 파악은 '어떤 대상의 내용이나 본질을 확실하게 이해하여 앎'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두 문장에서 인상은 '물건값, 봉급, 요금 따위를 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두 문장에서 배제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 두 문장에서 전가는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씌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해답 ①

1

문항의 이해와 출제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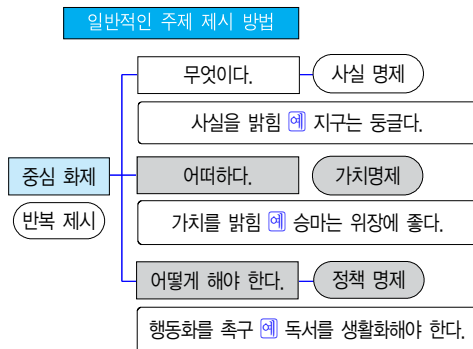
화제 항목을 일정한 흐름과 짜임에 맞도록 배열한 방식을 논지 전개 방식이라 하고 설명, 논증, 묘사, 서사 등 글을 조직하는 일정한 원리를 진술 방식이라 하는데, 논지 전개 방식과 진술 방식의 원리나 그 갈래, 동일한 방식을 쓴 글을 알아내는 문제가 출제된다. 앞에서 말한 논지 전개 방식에 의한 결론이 곧 주제가 되는데 주제란 필자가 제재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가치 평가를 내려 집필 동기 및 통일적인 기본 이념으로 삼은 것이다. 즉, 핵심이 되는 의미 또는 중심 사상이다. 이러한 주제·제목·궁극적 주장을 알아내는 문제나 주제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질문을 알아내는 문제, 주제를 작성하기에 필요한 어휘를 알아내는 문제, 그리고 표제와 부제를 알아내는 문제가 출제된다.

2

원리는 이렇다



(1) 글의 일반적인 주제 제시 방법



일반적으로 글의 주제는 중심 화제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덧붙인 형태로 글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따라서 중심 화제를 찾고 이에 대하여 무엇이다, 어떠한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는가를 살펴 주제문으로 잡으면 된다.

예문보기

창조를 흔히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 냄이라고 한다. ‘무(無)’란 ‘없음’이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하여도 없음에는 우선 두 종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어떤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완전히 없음을 의미하는 무가 하나요, 그와는 달리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된 그 어떤 무엇이 없음을 의미하는 결여의 무가 또 하나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 아닌 재물건이건 인간이건과의 관계없이 생존할 수 없는 것이거나와, 이 점을 두고서라도 인간이 하는 창조를 말하는 경우에는, 이미 인간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이다.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무로부터 유를 창조한다는 것은 인간에 있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하여 인간에 있어서 문제되는 창조란, 아직까지 없었던 특정된 그 무엇을 하나의 새로운 유로 만들어 냄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 박종홍, 새 역사의 창조

- ▶ 창조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중심 화제는 창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심 화제에 대하여 ‘인간에 있어서 문제되는 창조란, 아직까지 없었던 특정된 그 무엇을 하나의 새로운 유로 만들어 냄을 의미한다고 하겠다.’라고 서술하고 있어 이 문장이 주제문이 된다.

(2) 논지 전개 방식과 주제 제시 방법

① 추론 방식에 따라

- ① 연역적 방식 : 추상적 진술인 대전제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실을 주제로 제시한다.

예문보기

일 년 내내 녹색의 잎을 가지에 매달고 있는 상록침엽수들은, 겨울철에는 토양 온도가 낮아서 뿌리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지만, 햇볕에 비치면 잎은 어쩔 수 없이 수분을 증발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들 나무의 잎은 겨울철 증산 작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두꺼운 큐티쿨라 층을 가지고 있고, 기공이 잎의 요면에 들어가 있으며, 햇물관의 구조도 수분 통로가 증산이 억제되도록 발달되어 있다. 예를 들면, 솔잎과 같이 잎이 두껍고 끈적끈적하거나, 회양목이나 동백나무처럼 두껍고 작은 잎을 가진 상록수들은 물의 씹씹이가 작아서 겨울철 햇볕 아래서도 수분의 지출이 적어 살아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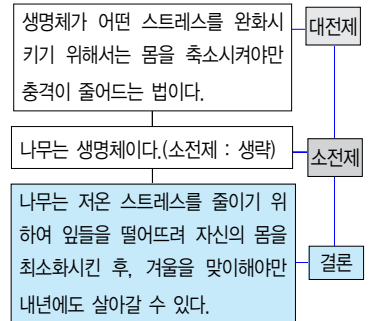
생명체가 어떤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몸을 축소시켜야만 충격이 줄어드는 법이다. 고양이가 점프하여 착지할 때에도 몸을 움츠려 충격을 최소화한다. 권투 선수도 움츠른 상태에서 맞을 때 충격이 적다. 선인장은 건조 스트레스를 견디기 위해서 잎을 계속 줄여 나간 끝에 잎이 가시로 변한 것이다. 나무는 저온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하여 잎들을 떨어뜨려 자신의 몸을 최소화시킨 후, 겨울을 맞이해야만 내년에도 살아갈 수 있다.

— 권성환, 겨울잠을 준비하는 식물들



윗글의 첫째 문단이 상록침엽수의 겨울을 나기 위한 잎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둘째 문단의 중심 화제도 나무로 잡아야 한다. 즉 생명체와 관련된 일반적 진술로부터 연역적으로 전개하여 나무가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둘째 문단의 주제문은 '나무는 저온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하여 잎들을 떨어뜨려 자신의 몸을 최소화시킨 후, 겨울을 맞이해야만 내년에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문장이다.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 ② 귀납적 방식 : 여러 가지 구체적 사례를 일반화시켜 보편적 원리를 주제로 제시한다.

예문보기

예수는 사랑을 부르짖었다. 누가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내놓으라고 했다. 이웃과 하느님을 온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자는 이른바 인의예지(仁義禮智)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쳤다. 석가는 대자대비, 곧 자비심을 발휘하는 삶만이 열반에 든다고 가르쳤다. 그 밖의 많은 성현과 위인들이 한결같이 그러한 정신적인 가치가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내세웠다.

곧 그들은 사람이란 동물과는 달리 물질의 욕구나 본능의 충족을 목표로 삼지 않고 정신적인 진선미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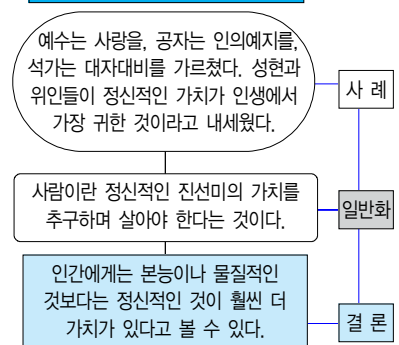
이렇게 볼 때 인간에게는 본능이나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장인용, 「인생과 가치」



예수, 공자, 석가 등의 사례를 일반화하여 '인간에게는 본능이나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란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㉔ 변증법적 방식 : 정(正)과 반(反)을 대립시키고 **정·반의 합(合) 즉, 절충안을 주제로 제시한다.**

예문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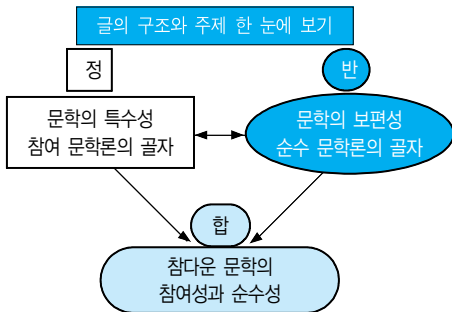
문학이 구체적인 삶의 체험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때 문학도 필연적인 역사성을 떠날 수 없다. 왜냐 하면, 각 사람이 사는 환경은 매순간마다 특수한 것이며, 거기서 빚어지는 체험도 구체적이며 따라서 특수성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각기 문학 작품도 특수성을 떨 수 밖에 없고, 특수성을 벗어나는 경우 진실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 추출될 것이다.

문학 작품이 특수하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이 어디까지나 개인의 극히 개별적인 활동의 결과이면서 극히 사회적인 성격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한 문학 작품은 그것이 쓰여진 시대와 한 사회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한 시대와 한 사회를 넘어서서 모든 인간에게 열려 있으며 호소하기 마련이다.

참여 문학론의 골자는 문학의 시대와 사회성을 강조한다. 한 개인의 개별적인 체험을 넘어 시대와 사회라는 비개인적 차원을 강조하는 이 주장은 완전한 의미에서 문학의 특수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지만, 특수한 역사, 사회, 그리고 특수한 주제와 가치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모두 초월하지는 순수 문학 이론과 맞서서 문학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순수 문학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문학이 삶의 문제를 다루되, 그러한 문제는 비록 구체적인 사회와 시대를 떠난 어떤 추상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없지만, 구체적인 시대와 사회에서 일어나는 체험을 통해서 보다 보편적인 삶의 문제, 보다 영원성 있는 체험을 나타내서 특수한 시대와 사회를 초월할 수 있는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다운 문학은 참여 문학이 아닐 수 없으며 그와 동시에 순수 문학이 아닐 수 없다. 문학 작품은 참여라든지 혹은 순수라든지의 극히 편협적이고 일반적인 그릇된 관점을 무시하고 그것의 기능, 즉 가장 절실하고 가장 참신한 체험을 표현하는 데 있다. 이러한 문학은 절실히 그리고 깊고 보편적인 감동을 자아낼 수 있을 것이다. — 박이문, 「순수 문학과 참여 문학」



▶ 첫째 문단과 둘째 문단에서 문학의 특수성과 참여 문학론의 골자를 제시하고 셋째 문단과 넷째 문단에서 문학의 보편성과 순수 문학론의 골자를 제시해 서로 대립시킨 후 참다운 문학의 참여성과 순수성이라는 합을 주제로 제시하고 있다.

㉕ 논박적 방식 : 자신의 견해와 대립된 주장의 잘못된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옹호하려는 주장을 제시한다. **옹호하려는 주장이 주제이다.**

예문보기

요즈음 들으니, 내수사에서 불사(佛事)를 숭상한다고 합니다. 선왕조에서는 사사(寺社)의 전민(田民)을 모두 삭감하였었는데 지금 점차 환급하고 있고 각 산사(山寺)의 주자(住持)가 있는 곳에도 많이 회복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능침(陵寢)같은 데도 중들이 날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습니다. 상계서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시겠으나 그것이 이만저만 성치(聖治)에 누를 끼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학관(太學館) 유생들이 상소를 올리려다가 그만두었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선비들의 습속이 경박해진 까닭에서이니 더욱 한심스럽습니다. 위에서는 각별히 사기(士氣)를 진작시키시어 **이단(異端)이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반드시 배척해야 합니다.**

▶ 내수사에서 불사를 숭상하는 일의 잘못된 점을 들어 논박하면서 이를 배척해야 한다는 주장을 주제로 제시하고 있다.

② 구성 방식에 따른 글의 주제

㉠ 자연적 구성 : 사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살피 나가는 전개적 구성.

㉡ 시간적 구성 : 사건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화제 항목을 배열하는 구성. 서사적 사건의 구성에 주로 쓰인다. **서사적 의미를 찾아 주제로 잡아야 된다.**

예문보기

영국 맨체스터에서 가까운 지역 신도시에서 운전 미숙으로 길을 잘 못 들어 아무리 헤매어도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다. 차를 세우고 길을 물어 찾아가려고 한참 기다리니 멋지게 생긴 승용차 한대가 지나가기에 손을 들어 세워 우리가 찾아가는 지역의 방향을 알려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흔쾌히 대답하더니 따라 오라는 것이었다. 인도하는 차를 따라가 보니 정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이렇게 자기가 가던 방향의 반대쪽임에도 아무 말 없이 수고해 주고 다시 안내까지 철저하게 해준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가르쳐 준 길로 방향을 설정하고 가려는 데 인도해 주던 차가 경적을 울려 주면서 잘 가라고 손짓을 해준다. 그는 못 미더워서 끝까지 우리가 가는 방향을 확인한 후에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었다. 우리는 차 뒷모습을 바라보며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눌 수 없었다.

— 신동우, 「진정한 친절」

👉 여기서는 서사적 의미인 **‘영국인은 진정으로 친절하다’**를 주제로 잡는다.

㉢ 공간적 구성 : 대상의 배열 순서에 따라 화제 항목을 배열하는 구성. 대상의 묘사에 주로 쓰인다. **대상의 전체적인 모양이나 속성이 주제가 된다.**

예문보기

장군총은 집안읍의 동쪽 산기슭에 있는 큰 돌무덤으로, 잘 다듬어진 화강암을 일곱 단으로 쌓은 **피라미드형이다**. 한 변의 길이는 약 30미터, 높이는 13.5미터로 네 귀가 각각 동서남북을 가리키며, 정면은 남서쪽으로 통구 평야를 바라보게 되어 있다. 현실(玄室)은 제3단의 뒷면을 바닥으로 하는 상자 모양의 방이며, 이 안에 두 개의 곡받침이 나란히 있고, 그 앞에는 연도가 있다. 고분의 꼭대기는 석회질과 자갈을 섞어 만들어 표면이 둥글게 지붕처럼 되어 있고, 가장자리 돌에는 같은 간격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 난간을 세웠던 자리처럼 보인다.

— 김원룡, 「한국의 고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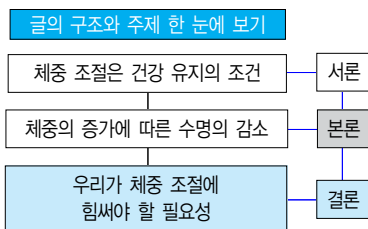
👉 여기서는 대상의 전체적인 모양을 드러내고 있는 **‘장군총은 집안읍의 동쪽 산기슭에 있는 큰 돌무덤으로, 잘 다듬어진 화강암을 일곱 단으로 쌓은 피라미드형이다’**라는 문장을 주제로 잡는다.

㉣ 논리적 구성 : 쓰는 이의 의도대로 논리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배열하는 종합적 구성.

㉤ 단계식 구성 : 설명문, 논설문에 주로 쓰이며 3, 4, 5단의 구성법이 있는데 주제는 **결론에서 요약적으로 제시된다.**

3단 구성	4단 구성	5단 구성
1. 도입	1. 도입	1. 주의 환기(화제에 주의를 모으는 단계)
		2. 과제 제기(문제를 제기하는 단계)
2. 전개	2. 전개	3. 과제 해명(문제의 해결법을 제시하는 단계)
	3. 발전	4. 구체화(해결법을 구체화하고 그 유효성을 증명하는 단계)
3. 정리	4. 정리	5. 요약(전체의 내용을 마무리하는 단계)과 전망

예문보기



• 3단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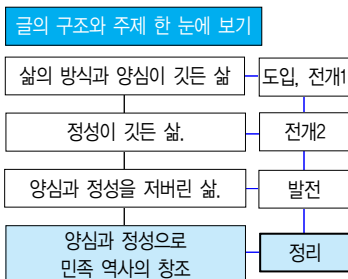
체중 조절은 건강 유지의 기본 조건이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평균 체중보다 10% 가량 가벼운 사람이 가장 사망률이 낮다. 평균 체중보다 10% 무거울 때 남자에게는 11%, 여자에게는 7%의 수명 감소율을 가져오며, 20% 무거울 때는 남자에게는 20%, 여자에게는 10%의 수명 감소를 가져온다.

이러한 실험 보고는 우리가 체중 조절을 위하여 힘써야 할 것을 말해 준다.

▶ 체중 조절은 건강의 유지 조건이라는 서론으로부터 체중의 증가에 따른 수명의 감소라는 내용을 해명한 다음 체중 조절에 힘써야 할 필요성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문보기



• 4단 구성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사는 방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도 많을 것이다.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과 방법은 누구도 탓할 것이 못 될 줄 안다. 그러나 어떻게 살든 간에 마음가짐만은 바르게 가질 것을 다져야 한다. 바른 마음이란, 곧 양심을 뜻한다. 욕망에 물들지 않고 거짓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발가벗은 갓난아이와 같은 순수성, 그것이 바로 양심이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으로 가득 찬 세상은 티없이 맑은 하늘처럼 깨끗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하늘처럼 맑기만 하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양심만으로는 살아갈 방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양심의 명령대로 움직이되, 그 움직임에 정성을 깃들여야 한다. 제 아무리 살아가는 방식이 호화롭고 살아가는 방법이 떼떽하다손 치더라도 정성이 깃들지 않는다면 반드시 트집이 나게 마련이고, 끝내는 양심마저 저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양심은 누구나 지닐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양심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지저분해지고 죄악이 저질러지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주위에는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함으로써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보다는, 자랑 따위는 시렁 위에 얹어 놓고 양심도 정성도 보자기를 덮어 감추어 버리고 오직 욕망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 서글프기 짝이 없다. 서글프다기보다 적의 거래의 앞날이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기나긴 민족의 역사로 보았을 때, 오늘을 사는 우리는 역사상으로 이 시대의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주인공들이다. 먼 훗날, 역사가들이 현재 이 땅의 국민들은 양심을 저버리고 정성을 외면함으로써 조국의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정병욱, 「정성과 금지로 행복을」

▶ 첫째 문단에서는 서론으로 삶의 방식을 말하고 곧바로 양심이 깃든 삶을 논하면서 전개1로 삼고 있다. 이어 둘째 문단에서는 정성이 깃든 삶을 전개2로 내세우고 셋째 문단에서는 양심과 정성을 저버린 삶으로 화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넷째 문단에서는 전체 내용을 양심과 정성으로 민족 역사의 창조라고 정리하여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⑥ 포괄식 구성 : 글의 주지를 어느 위치에 배열하는가에 따른 구성 방식으로
두괄식, 미괄식, 중괄식, 양괄식 등이 있다. 글 전체보다는 어느 부분에 주
로 쓰인다. 주제는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는 진술이 된다.

예문보기

- 두괄식 구성 : 첫머리에 주제문을 제시하는 구성

항상 남을 앞지르려고 기를 쓰는 우리들은 계절도 흔히 앞당겨 사는 꼴이 되곤 한다. 우리는 한 겨울에 봄을 맞이하고 봄이 되면 여름을 살기에 바쁘다. 우리는 한 여름에 가을맛이를 서둘러야 하고, 가을이 되면 이젠 겨울을 이야기해야 한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과일을 먹는 습관만 봐도 여실히 입증된다. 우리나라 풍토에서 참외와 수박이 가장 맛있는 때는 삼복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다. 그래서 참외와 수박은 한여름에 먹는 과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오늘날 행세를 하려면 한여름이 되기 훨씬 전에 참외와 수박을 먹어 두어야 한다.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겨울에 참외와 수박을 먹는 것이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늦은 봄이나 이른 여름쯤에는 그것들을 먹어야 낙오자가 아니다. 물론 때 이른 과일이 제 맛이 날리는 없지만, 사람들은 낙오자가 되면서까지 맛있는 과일 먹기를 원치 않는다.

— 김태길, 「앞만 보고 달리는 계절병」

➡ 주장을 먼저 내세우고 이를 입증하는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어 두괄식 구성이 된다.

예문보기

- 미괄식 구성 : 끝 부분에 주제문을 제시하는 구성

우리 사회에서는 남의 애를 칭찬하는 말로서, ‘그놈 대통령 감이다.’, ‘그 놈 장군 감이다.’라는 말을 흔히 쓴다. 이런 말은 그 애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 주는 말인지도 모른다. 아니, 이것은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식에게 거는 꿈인지도 모르겠다, 이 꿈 뒤에 서려있는 것은 조선 오백 년 동안 맺혀 왔던 모든 백성들의 꿈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한다. 입신양명(立身揚名)하는 것은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고, 과거에 급제한다는 것은 관리가 되는 것이고, 관리가 되는 것은 곧 일반 서민을 지배하는 계급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모든 백성들의 꿈이란 남보다 나은 지위에 오르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꿈은 모든 백성들이 가지고 있을 때 결과적으로 예상되는 것은 권력 투쟁이다. 죽고 죽이고 유배당하는 조선의 피비린내 나는 당쟁이 그것을 실증한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권력 지향의 꿈은 언제나 정치적 비극의 불씨가 되어 왔다.

— 김상태, 「꿈」

➡ 사례들을 앞에 내세우고 주장을 끝에 제시하고 있어 미괄식 구성이 된다.

예문보기

- 중괄식 구성 : 가운데 부분에 주제문을 제시하는 구성

가치 곧 진선미를 향해서 우리 마음은 움직이게 마련이다. 아름다운 것, 착한 것 그리고 참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끌리고 세차게 움직인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가치(가치)를 사랑한다. 아름다운 꽃이나 그림을 보고 기뻐하지 않은 사람은 드물며, 착한 어린이의 순진한 행동을 보거나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이들을 대하고 호뭇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이는 거의 없다. 누구나 모든 일에서 거짓보다는 참다운 것을 천성적으로 좋아하고, 특히 탐구심이 강한 이들은 진리를 향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이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오롯이 바치는 일조차 있다.

➡ 전체를 포괄하는 진술이 가운데 있어 중괄식 구성이 된다.

예문 보기

- **양괄식 구성** : 처음과 끝에 주제문을 제시하는 구성. 처음과 끝에 형태는 다르나 뜻은 같은 문장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를 향한 내적인 성찰과 세계를 향한 외적인 관찰은 인간 사고의 두 개의 극(極)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아주 별개의 것은 아니다. 내가 내게 관심을 가질 때 나는 필경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이 주체적으로 실존한다 해도 그 실존은 언제나 세계와 더불어 있는 실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이 인간에 관해 던지는 물음과 세계에 관해 던지는 물음은 짝지어져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 김열규, 「신화적 사고」

같은 의미의 주장이 앞과 뒤에 있어 양괄식 구성이 된다.

- ㉞ **무괄식 구성** : 글의 주제가 쉽게 드러나는 경우 별도로 주제문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전체의 내용을 대등하게 나열하거나 포괄할 수 있는 진술을 작성하여 주제문으로 잡는다.

예문 보기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군 할머니로 통하는 분이 있다. 가난한 농사꾼의 몸으로 아들을 잘 가르쳐서 고시 파스까지 시켜 그 아들로 하여금 서울에서 호화 주택에 자가용까지 놓고 살기에 이르도록 하였다고 한다. 부잣집 따님을 며느리로 맞이한 덕분이기도 했으리라. 어느 날 금이야 옥이야 하는 손자놈의 돌을 맞아 늙은 내외분이 나의 어머니처럼 보통이를 들고 아들네 집을 찾아갔다고 한다. 행여나 옷에서 먼지라도 떨어지면 어쩔까 싶어 숨을 죽이며 발을 옮겨 다녀야 할 저택, 늙은이들의 어깨가 얼마나 으쓱했을까. 아장아장 손자놈이 걸어 나왔다. 얼마나 보고 싶던 핏덩이인가. 무심결에 “아이쿠 내 새끼야” 외치는 소리에 앞서 어느덧 손자는 할머니의 품 속에 안겨 있었다. 뒤늦게 나오다가 이를 본 며느리가 질겁을 했다. 시부모님께 대한 인사는 저만 두고 “저런 군이 옳으면 어쩔라고” 신경질을 부리며 아기를 빼앗아 가더라는 것이다. “닭쫓던 개”란 이를 두고 한 말이겠다.

— 문도채, 「군 할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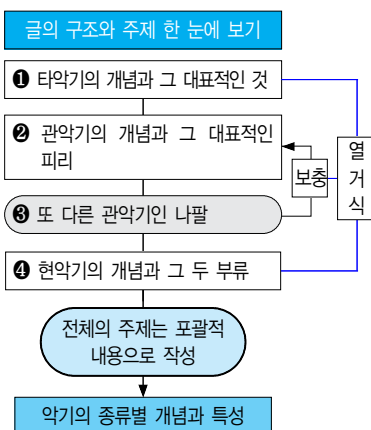
-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무괄식 구성이 되고 주제는 서사적 의미를 작성하여 ‘도시 며느리는 시골 시부모를 아랑곳하지 않는 성향이 있다.’라 할 수 있다.

- ㉟ **열거식 구성** : 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배열하는 구성. 문제간의 관련성이나 논리적인 일관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글에 주로 쓰인다. 이 경우는 전체의 내용을 대등하게 나열하거나 포괄할 수 있는 진술을 작성하여 주제문으로 삼는다.

예문 보기

타악기는 장고나 징과 같이, 쳐서 소리를 내는 악기로 그 대표적인 것은 북으로, 통나무, 바가지 등에 짐승의 가죽으로 때리는 면을 만들어 작대기나 손으로 치는 것이며, 모양도 우리나라의 절구처럼 된 것, 장고 모양, 향아리 모양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특히 서부 아프리카의 신호용 북은 큰 통나무로 3미터 정도의 길이로 된 나무를, 속을 파고 껍질에 문양을 조각한 것도 있다. 북의 중앙, 전후, 좌우를 치면서 갖가지 음을 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람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 북으로 표현된다.

관악기의 간단한 형태로는 버들피리처럼 입에다 나무 껍질을 갖다 대고 진동시키는 입피리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대로 된 통소나 피리가 있다. 짐승의 뼈로 만든 것, 짐승의 뿔로 만든



것, 조개 껍데기로 된 것 등도 있지만, 피리의 대부분은 대나무로 된 것으로 옆으로 부는 것, 앞으로 부는 것이 있으며, 길고 짧은 대를 한 줄로 엮어 하모니카와 같이 부는 것도 있고 코로 부는 것도 있다. 코로 부는 피리는 동남 아시아 여러 지역에 널리 퍼져 있다.

또 다른 관악기로 나팔이 있는데, 이것은 긴 나무를 속을 비워 만든 것으로 길이가 짧고 음이 강한 것도 있고, 길이가 3미터 정도 긴 것도 있으며, 특히 티벳과 같이 고산 지대에서는 이렇게 긴 나팔을 산꼭대기에서 신호용으로 사용한다.

현악기는 바이올린, 첼로 등과 같이 악기에 붙어 있는 현을 사용하되 다른 현궁(絃弓)으로 음을 내는 것과, 하프나 우리나라 가야금과 같이 손가락으로 튕기거나 뜯어서 소리를 내는 것이 있다. 전자는 우리나라 해금과 같은 것으로 현의 수, 현궁, 그리고 모양 등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다. 후자의 예로는 우리나라 월금과 같은 종류가 있으며, 활과 같이 단순한 것도 있다.

— 이광규, 『문화인류학』

▶ 첫째 문단의 주제는 ‘타악기의 개념과 그 대표적인 것’이고 둘째 문단의 주제는 ‘관악기의 개념과 그 대표적인 피리’이며 셋째 문단의 주제는 ‘또 다른 관악기인 나팔’이다. 넷째 문단의 주제는 ‘현악기의 개념과 그 두 부류’이므로 전체적으로 보면 열거식 구성이다. 전체의 주제는 포괄적 내용으로 작성하여 ‘악기의 종류별 개념과 특성’이라 할 수 있다.

㉔ 점층식(점강식) 구성 : 덜 중요한 것에서부터 중요성이 큰 것의 순서나 그 역순으로 배열하는 구성으로 문학 작품에 주로 사용된다. 중요성이 큰 내용을 담은 진술이 주제문이 된다.

예문보기

신록은 먼저 나의 눈을 씻고, 나의 머리를 씻고, 나의 가슴을 씻고, 다음에 나의 마음의 모든 구석을 하나하나 씻어낸다. — 이양하, 『신록예찬』

▶ 눈, 머리, 가슴, 마음 등으로 보아 작은 부분에서 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점층적 구성이 되고 주제문은 ‘신록은 나의 마음의 모든 구석을 하나하나 씻어낸다.’라 할 수 있다.

③ 진술 방식에 따른 글의 주제

동태적 진술 — 서사, 과정, 인과 : 시간의 흐름을 개입시켜 진술
 정태적 진술 — 분석, 묘사 : 부분으로 나누어 진술
 분류, 예시, 정의 :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을 이용하여 진술
 비교, 대조, 유추 :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진술

㉕ 서사 : 일정한 시간 내에 일어나는 일련의 행동이나 시간의 전개에 따른 행위에 초점을 두고 전개하는 방법. 서사적 의미가 주제가 된다.

예문보기

오후 다섯 시 경에 일본 공사관은 포위 속에 빠져 버렸다. 총소리가 ‘탕!’ 하고 일어나기 시작한다. 조선 군인의 발포다. 뒤미처 총소리가 콩 볶듯 일어난다. 공사관은 유리창이 깨어지고 벽이 뚫어지기 시작한다.

▶ 서사적 의미인 임오군란이 주제이다.

㉖ 과정 : 동일한 목표나 결과를 가져오게 한 일련의 행동, 변화, 기능, 단계, 작용에 관계되는 원리로서, ‘어떻게’에 주된 관심을 두고 진술하

는 방식. **목표나 결과가 주제**가 된다.

예문보기

김치찌개를 끓이려면 우선, 김치를 먹기에 알맞은 크기로 자른다. 두부와 함께 냄비에 넣고 물을 적당히 붓고 끓인다. 끓기 시작하면 파, 마늘 등의 양념을 넣고 좀 더 끓인다.

➡ 목표인 **김치찌개 끓이는 법**이 주제이다.

- ㉞ 인과 :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영향이나 힘, 또는 이러한 힘에 의해 초래된 현상에 관심을 두고 전개하는 방법. **주로 결과가 주제**가 된다.

예문보기

사람들이 산을 개간하여 농지로 바꾸기 위해 나무를 벌채하자, 비가 오면 흙이 쓸려 내려갔고 그 결과 산은 더욱 험박하게 되었으며 결국 **농사도 짓지 못하게 되었다**.

- ㉟ 분석 : 하나의 관념이나 대상을 구성 요소로 나누어 진술하는 방식. **대상의 구성 요소가 주제**가 된다.

예문보기

고전적인 시계는 태엽과 톱니바퀴, 바늘로 이루어져 있다. 태엽의 힘으로 톱니바퀴에 맞물려 있는 바늘을 적당한 속도로 돌리게 된다. 이런 바늘의 움직임 정도를 알게 해 주기 위해 숫자판이 있고 숫자판을 보호하기 위해 유리로 덮어놓았다.

- ㊱ 묘사 : 대상의 형태, 색채, 감촉, 향기, 소리, 맛, 분위기 등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본떠서 독자가 그 대상에 대해 이해하게 진술하는 방식. **대상의 전체적인 양상이 주제**가 된다.

예문보기

서인도 제도는 따뜻한 바다 가운데 있다. 이 바다에서 생긴 온난하고 습기가 찬 무역풍이 이 섬들로 불어간다.

- ㊲ 분류 : 어떤 대상이나 생각들을 비슷한 특성에 근거하여 상위 개념으로 묶거나 하위 개념으로 나누어 진술하는 방식. **상위 개념에 대한 하위 개념의 분류가 주제**가 된다.

예문보기

인간의 기원 문제는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의 두 학설이 있다. 자연적인 것으로는 다윈의 진화론이 대표적이며 우연적인 원자의 결합으로 아메바가 생기고 이에서 진화하여 원숭이가 되고 다시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것이다. 초자연적인 것은 창조론이 대표적인데 창조주의 의도적인 설계에 따라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다.

- ㊳ 예시 : 어떤 대상이나 생각을 하위 개념으로 예를 들어 구체화시키는 진술 방식. **예시에 대한 추상적 진술이 주제**가 된다.

예문보기

우리의 몽유록(夢遊錄) 작품에는 꿈을 빌어 작자의 마음속 울분을 토로하거나 시대를 비판한 것이 많다.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 실패한 슬픔과 억울함을 나타낸 '원생몽유록'과 병자호란의 참상과 울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강도몽유록'이 그것이다.

- ㉠ 정 의 : 어떤 대상 또는 생각의 범위를 규정짓거나 본질을 진술하는 지적 작용. 주로 정의 자체가 주제가 된다.

예문보기

엉터리 약사, 의사 등을 흔히 돌팔이라고 말한다. 어떤 일이든 돈을 받고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돌팔이라고 말들을 한다. 돌팔이란 돌아다니면서 팔아먹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 ㉡ 지 정 :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하듯 있는 그대로 일러주는 설명 방법, 주로 정의와 함께 사용된다. 대상 자체가 주제가 된다.

예문보기

북쪽 하늘에 W자처럼 배열된 별자리가 카시오페아 자리이다.

- ㉢ 비 교 :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물들에 대해 그들이 지니고 있는 비슷한 점을 밝혀내는 지적 작용. 대상의 공통점이 주제가 된다.

예문보기

연극과 영화는 자아와 세계와의 갈등을 다루되 서술자가 개입하지 않는다.

- ㉣ 대 조 :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물들에 대해 그들이 지니고 있는 차이점을 밝혀내는 지적 작용. 대상의 차이점이 주제가 된다.

예문보기

희곡은 자아와 세계의 갈등을 서술자가 개입하지 않고 제시하지만 소설은 서술자가 개입하여 제시한다. 다시 말하면 희곡에서는 서술자가 등장할 수 없지만 소설에서는 서술자가 등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 ㉤ 유 추 : 어떤 공통된 근거에 따라 미지의 사실을 추론하는 진술 방식. 미지의 사실에 대한 판단이 주제가 된다.

예문보기

인생은 짧지 않다. 그리고 결국 혼자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마라톤도 긴 거리를 혼자 달리는 힘든 경기이다. 따라서 인생도 마라톤처럼 힘든 여정이라 할 수 있다.

- ㉥ 비 유 : 어떤 사물이나 관념을 그것과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다른 사물이나 관념에 연결시켜 제시하는 진술 방식. 대상에 대한 비유 자체가 주제가 된다.

예문보기

현대 사회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 한 가지를 말한다면 현대 사회는 드넓은 바다를 향해가는 배처럼 방향을 알려주는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3 방법은 있다



(1) 문단의 주제·제목·궁극적 주장을 찾는 방법

- ① 자주 반복되는 말이 제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자주 반복되는 말에 대해 ‘무엇이다’, ‘어떠하다’고 말하거나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 ② 비교, 대조, 열거로 이루어진 문단에서와 같이 내용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거나 무관식처럼 나열되면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추상적·일반적 문장을 만들어 주제로 잡는다.
- ③ 구체적 진술의 문장과 추상적 진술의 문단에서는 추론 방식을 고려하여 연역법이면 구체적 진술을, 귀납법이면 추상적 진술을, 변증법이면 그 합을, 논박이면 대립된 주장에 대한 옹호하려는 주장을 주제로 잡는다.
- ④ 진술 방식에 따른 주제 표출 방식을 고려하여 주제를 찾아본다.

(2) 전체의 주제·제목·궁극적 주장을 찾는 방법

- ① 문단의 주제를 찾는 방법을 이용하여 각 문단의 주제문을 만든다.
- ② 각 문단의 주제문을 모아 하나의 문단으로 생각하고 논지 전개 방식과 진술 방식을 고려하여 주제문을 찾는다.

(3) 주제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질문을 알아내는 방법

- ① 주어진 글의 주제문을 작성한다.
- ② 작성된 주제문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지 확인한다.

(4) 주제를 작성하기에 필요한 어휘를 알아내는 방법

- ① 주어진 글의 주제문을 작성한다.
- ② 주제문에 포함된 어휘들을 제시된 어휘들과 비교한다.

(5) 표제와 부제를 알아내는 방법

- ① 주어진 글이나 구절과 관련된 주제문을 작성한다.
- ② 표제는 중심 제재인가, 주제의 일반적 의미를 표현하거나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인가 확인해 본다.
- ③ 부제는 중심 제재를 풀이하는 말인가, 주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말인가 확인해 본다.

(6) 논지 전개 방식을 알아내는 방법

우선 설문에서 제시한 제재와 관련된 내용을 추상적 진술 혹은 주제와 뒷받침 진술로 나눠 본다.

- ① 추론 방식에 따른 갈래(연역법, 귀납법, 변증법, 논박)를 생각해 본다.
- ② 구성 방식에 따른 갈래(시간적, 공간적, 단계식, 포괄식, 열거식, 점층식)를 생각해 본다.
- ③ 진술 방식에 따른 갈래(서사, 과정, 인과, 분석, 묘사, 분류, 예시, 정의, 비교, 대조, 유추)를 생각해 본다.
- ④ 혼동하기 쉬운 진술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 ㉠ **비교와 대조** : 비교는 차이가 많이 나는 대상들에서 공통점을 찾기 위해 사용하고, 대조는 같아 보이는 대상들의 차이를 밝히는 데 사용한다.
- ㉡ **비유와 유추** : 문장의 외형으로 볼 때, 비유는 대상 자체가 같다고 표현되며 유추는 속성이 같다고 표현된다. 비유는 공통된 속성이 한 가지만 있어도 되나 유추는 둘 이상, 많을수록 좋다.
- ㉢ **비교와 유추** : 비교는 두 대상의 특정한 점을 같다고 서술하는 것이며, 유추는 두 대상 사이에 특정한 공통점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다.
- ㉣ **정의와 지정** : 정의는 대상의 속성이 드러나고 지정은 대상 자체가 드러난다.

🔵 “영터리 약사, 의사 등을 흔히 돌팔이라고 한다.”(정의)에서는 돌팔이의 속성(영터리)이 드러난다. 그러나 “북쪽 하늘에 W자처럼 배열된 별자리가 카시오페아 자리이다.”(지정)에서는 카시오페아 자리의 속성은 드러나지 않고 카시오페아 자리 자체만 드러난다.

- ㉤ **과정과 서사** : 과정은 동일한 결과가 반복되어 나타날 수 있으나, 서사는 그럴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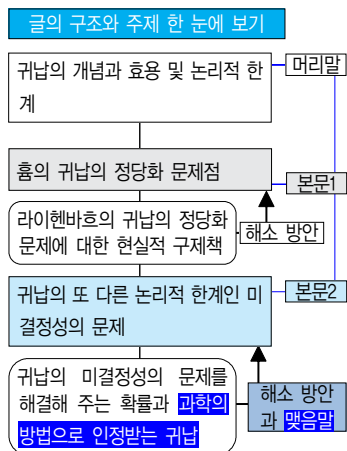
🔵 9쪽에서 “김치찌개 끓이는 법”은 늘 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나 “임오군란” 같은 사건은 되풀이 될 경우 공사관 유리창이 깨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 ㉥ **분석과 분류** : 분석은 분해한 것이므로 종합해야 개체나 결과가 성립하는데 비해, 분류는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나 결과의 종류를 나누는 것이다. 즉 분석은 잘 종합을 해야 상위 개념이 될 수 있으나 분류한 것은 곧바로 상위 개념에 속할 수 있다.

🔵 시계를 ‘분석’한 태엽, 톱니바퀴, 바늘 등은 잘 맞춰 종합해야 시계가 되지만, 시계를 ‘분류’한 벽시계, 손목시계 등은 그 자체로 시계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귀납의 논리적 한계를 제시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학설들을 설명하여 귀납이 과학적 방법임을 밝히고 있다.

이휘·클리닉

- 선형적 : 경험에 앞서서 인식의 주관적 형식이 인간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또는 그런 것.
- 구제책 : 구제할 대책.
- 개연성 : 절대적으로 확실하지 않으나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는 성질.

귀납은 현대 논리학에서 연역이 아닌 모든 추론, 즉 전제가 결론을 개연적으로 뒷받침하는 모든 추론을 가리킨다. 귀납은 기존의 정보나 관찰 증거 등을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지식 확장적 특성을 지닌다. 이 특성으로 인해 귀납은 근대 과학 발전의 방법적 토대가 되었지만, 한편으로 귀납 자체의 논리적 한계를 지적하는 문제들에 부딪히기도 한다.

먼저 흠은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 되려면 미래의 세계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 온 세계와 동일하다는 자연의 일양성, 곧 한결같음이 가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자연의 일양성은 선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기대어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다.”라는 주장은 “자연은 일양적이다.”라는 다른 지식을 전제로 하는데 그 지식은 다시 귀납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하는 경험적 지식이므로 귀납의 정당화는 순환 논리에 빠져 버린다는 것이다. 이것이 귀납의 정당화 문제이다.

귀납의 정당화 문제로부터 과학의 방법인 귀납을 옹호하기 위해 라이헨바흐는 이 문제에 대해 현실적 구제책을 제시한다. 라이헨바흐는 자연이 일양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전제한다. 먼저 자연이 일양적일 경우, 그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경험에 따라 귀납이 점성술이나 예언 등의 다른 방법보다 성공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자연이 일양적이지 않다면, 어떤 방법도 체계적으로 미래 예측에 계속해서 성공할 수 없다는 논리적 판단을 통해 귀납은 최소한 다른 방법보다 나쁘지 않은 추론이라고 확인한다. 결국 자연이 일양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귀납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라이헨바흐의 논증은 귀납의 정당화 문제를 현실적 차원에서 해소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귀납의 또 다른 논리적 한계로 어떤 현대 철학자는 미결정성의 문제를 지적한다. 이 문제는 관찰 증거만으로는 여러 가설 중에 어느 하나를 더 나은 것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령 몇 개의 점들이 발견되었을 때 그 점들을 모두 지나는 곡선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예측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에 발견될 점을 예측할 때, 기존에 발견된 점들만으로는 다음에 찍힐 점이 어디에 나타날지 확정할 수 없다. 아무리 많은 점들을 관찰 증거로 추가하더라도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다고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결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현대 철학자들은 귀납을 과학의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들은 귀납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 하기보다 확률을 도입하여 개연성이라는 귀납의 특징을 강조하려 한다. 이에 따르면 관찰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 즉 전제와 결론 사이의 개연성은 확률로 표현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가설이 다른 가설보다,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다고 확률적 근거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확률 논리로 설명되는 개연성은 일상적인 직관에도 잘 들어맞는다. 이러한 시도는 귀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귀납은 여전히 과학의 방법으로서 그 지위를 지킬 만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01 윗글의 내용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귀납에 대한 흄의 평가를 병렬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 ② 귀납이 지닌 장단점을 연역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③ 귀납의 위상이 격상되어 온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 ④ 귀납의 다양한 유형을 소개하고 각각의 특징을 상호 비교하고 있다.
- ⑤ 귀납에 내재된 논리적 한계와 그에 대한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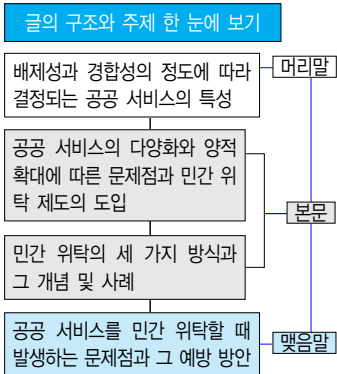
● **문항 분석** 제시된 글의 주제와 논지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우선 각 문단의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단 : 귀납의 개념과 효용 및 문제점, 둘째 문단 : 흄의 귀납의 정당화 문제점, 셋째 문단 : 라이헨바흐의 귀납의 정당화 문제에 대한 현실적 구체책, 넷째 문단 : 귀납의 또 다른 논리적 한계인 미결정성의 문제, 다섯째 문단 : 귀납의 미결정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확률과 과학의 방법으로 인정받는 귀납. 이로 보면 전체의 주제는 귀납법의 논리적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이라 할 수 있다.

● **오답 비루기** ①, ②, ③, ④ 모두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에서 제시한 글 전체의 주제와 무관하다.

✓ **해답** 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기획, 수행하여 유형 또는 무형의 생산물인 공공 서비스를 공급한다. 공공 서비스의 특성은 배제성과 경합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여야 사용이 가능한 성질을 말하며, 경합성은 한 사람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는 성질을 말한다. 이러한 배제성과 경합성의 정도에 따라 공공 서비스의 특성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국방이나 치안은 사용자가 비용을 직접 지불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다. 이에 비해 배제성은 없지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여 경합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무료로 이용하는 공공 도서관에서 이용자가 많아 도서 열람이나 대출이 제한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공공 서비스가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약한 사회 기반 시설 공급을 중심으로 제공되었다. 이런 경우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은 주로 세금을 비롯한 공적 재원으로 충당을 한다. 하지만 복지와 같은 개인 단위 공공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공공 서비스의 다양화와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관련 조직이 늘어나고 행정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경우 정부는 정부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지 않으면서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민간 위탁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민간 위탁이란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비스의 대상이나 범위에 대한 결정권과 서비스 관리의 책임을 정부가 갖되, 서비스 생산은 민간 업체에게 맡기는 것이다.

민간 위탁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경쟁 입찰 방식’이다. 이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업체 간 경쟁 입찰을 거쳐 서비스 생산자를 선정, 계약하는 방식이다. 공원과 같은 공공 시설물 관리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정부가 직접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때보다 서비스의 생산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정부의 재정 부담도 경감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면허 발급 방식’이 있다. 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과 시설이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업체에게 정부가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산업 폐기물 처리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공공 서비스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수준은 유지하면서도 공급을 민간의 자율에 맡겨 공공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으로 조절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보조금 지급 방식’이 있는데, 이는 민간이 운영하는 종합 복지관과 같이 안정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기관에 보조금을 주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 위탁 업체는 수익성을 중심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 위탁 업체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민간 위탁 제도에 의한 공공 서비스 제공의 성과는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평가와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 ▶ 배제성과 경합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공공 서비스의 특성을 제시하고 공공 서비스의 다양화와 양적 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민간 위탁 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어휘·클리닉

- 배제성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하는 성질.
- 경합성 서로 맞서 겨루는 성질.
- 위탁 남에게 사물이나 사람의 책임을 맡김.
- 입찰 상품의 매매나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 희망자들에게 각자의 낙찰 희망 가격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는 일.

에는 오히려 민간 위탁 제도가 공익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 위탁 제도의 도입을 결정할 때에는 서비스의 성격과 정부의 관리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02 [A]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특성이 변화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 ② 대상의 특성을 사례와 더불어 설명하고 있다.
- ③ 대상의 가치와 효용을 비유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 ④ 대상이 지닌 문제점의 원인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 ⑤ 대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간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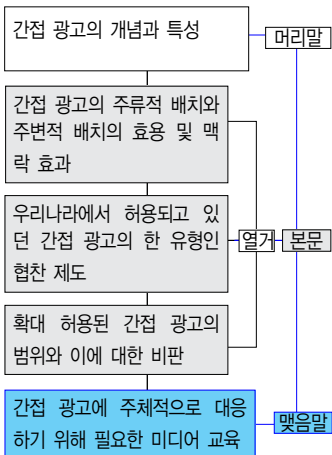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공공 서비스의 특성은 배제성과 경합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문장에서 대상의 특성을 밝히고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여야 사용이 가능한 성질을 말하며, 경합성은 한 사람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는 성질을 말한다.’라는 문장에서 특성의 개념을 밝힌 다음 ‘국방과 치안’, ‘공공 도서관’ 등의 특성이 적용된 예를 들고 있다.

● **오답 비루기** ①, ③, ④, ⑤ 전혀 언급되지 않은 내용으로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에서 밝힌 문장의 주제와도 관련이 없다.

✓ **해답** ②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요즘 시청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간접 광고에 수시로 노출되어 광고와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에 놓이게 됐다. 방송 프로그램의 앞과 뒤에 붙어 방송되는 직접 광고와 달리 PPL(product placement)이라고도 하는 간접 광고는 프로그램 내에 상품을 배치해 광고 효과를 거두려 하는 광고 형태이다. 간접 광고는 직접 광고에 비해 시청자가 리모컨을 이용해 광고를 회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시청자에게 노출될 확률이 더 높다.

광고주들은 광고를 통해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상품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확산시키려 한다. 간접 광고에서는 이러한 광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 주류적 배치와 주변적 배치를 활용한다. 주류적 배치는 출연자가 상품을 사용·착용하거나 대사를 통해 상품을 언급하는 것이고, 주변적 배치는 화면 속의 배경을 통해 상품을 노출하는 것인데, 시청자들은 주변적 배치보다 주류적 배치에 더 주목하게 된다. 또 간접 광고를 통해 배치되는 상품이 자연스럽게 활용되어 프로그램의 맥락에 잘 부합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 효과가 커지는데 이를 맥락 효과라 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극히 제한된 형태의 간접 광고만을 허용하는 협찬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 제도는 프로그램 제작자가 협찬 업체로부터 경비, 물품, 인력, 장소 등을 제공받아 활용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협찬 업체를 알리는 협찬 고지를 허용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내용이 전개될 때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 주거나 출연자가 이를 언급해 광고 효과를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했다. 협찬 받은 의상의 상표를 보이지 않게 가리는 것은 그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협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광고주와 방송사 등의 요구에 따라 방송법에 '간접 광고'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2010년부터 시행하였다. 간접 광고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프로그램 내에서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인 규제를 완화하여 방송 광고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프로그램 내에서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 주는 것이 허용되었다. 다만 시청권의 보호를 위해 상품명이나 상호를 언급하거나 구매와 이용을 권유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또 방송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보도, 시사, 토론, 등의 프로그램에서는 간접 광고가 금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 광고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간접 광고로 인해 광고 노출 시간이 길어지고 프로그램의 맥락과 동떨어진 억지스러운 상품 배치가 빈번해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시청자의 인식 속에 은연 중 파고드는 간접 광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청자들에게 간접 광고에 대한 주체적 해석이 요구된다. 미디어 이론가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외부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프레임임을 갖고 있어서 미디어의 콘텐츠를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간접 광고를 분석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미디어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 ▶ 간접 광고의 개념과 특성을 밝힌 다음 그 방식과 효과를 제시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을 들어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휘·클리닉

•프레임 일정한 격식이나 형식, '틀'로 순화.

0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간접 광고의 개념과 특성을 밝히고 있다.
- ② 간접 광고와 관련된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 ③ 간접 광고를 배치 방식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 ④ 간접 광고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 ⑤ 간접 광고에 관한 이론의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논지 전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우선 각 문단의 주제는 첫째 문단 : 간접 광고의 개념과 특성, 둘째 문단 : 간접 광고의 주류적 배치와 주변적 배치의 효용 및 맥락 효과, 셋째 문단 : 우리나라에서 허용되고 있던 간접 광고의 한 유형인 협찬 제도, 넷째 문단 : 확대 허용된 간접 광고의 범위와 이에 대한 비판, 다섯째 문단 : 간접 광고에 주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미디어 교육 등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보듯 간접 광고에 관한 이론의 발전 과정에 대해 언급된 내용은 없다.

● 오답 바꾸기 ① 첫째 문단에서 활용되었다. ② 셋째 문단에서 활용되었다. ③ 둘째 문단에서 활용되었다. ④ 다섯째 문단에서 활용되었다.

✓ 해답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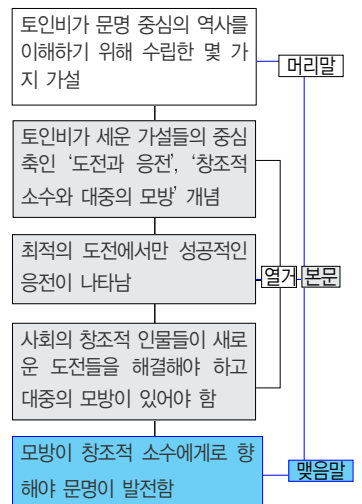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를 펴내며 역사 연구의 기본 단위를 국가가 아닌 문명으로 설정했다. 그는 예를 들어 영국이 대륙과 떨어져 있을지라도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서로 영향을 미치며 발전해 왔으므로, 영국의 역사는 그 자체만으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서유럽 문명이라는 틀 안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문명 중심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가설들을 세웠다. 그리고 방대한 사료를 바탕으로 그 가설들을 검증하여 문명의 발생과 성장 그리고 쇠퇴 요인들을 규명하려 하였다.

토인비가 세운 가설들의 중심축은 ‘도전과 응전’, ‘창조적 소수와 대중의 모방’ 개념이다. 그에 의하면 환경의 도전에 대해 성공적으로 응전하는 인간 집단이 문명을 발생시키고 성장시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이 역경이라는 점이다. 인간의 창의적 행동은 역경을 당해 이를 이겨 내려는 분투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토인비는 이 가설이 단순하게 도전이 강력할수록 그 도전이 주는 자극의 강도가 커지고 응전의 효력도 이에 비례한다는 식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위 ‘세 가지 상호 관계의 비교’를 제시하여 이 가설을 보완하고 있다. 즉 도전의 강도가 지나치게 크면 응전이 성공적일 수 없게 되며, 반대로 너무 작을 경우에는 전혀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최적의 도전에서만 성공적인 응전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 토인비가 문명 중심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수립한 '도전과 응전', '창조적 소수와 대중의 모방' 개념을 소개하고 문명이 발전하는 조건을 밝히고 있다.



어휘·클리닉

•사료 역사 연구에 필요한 문헌이나 유물, 문서, 기록, 건축, 조각 따위를 이른다.

이렇게 성공적인 응전을 통해 나타난 문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즉 새로운 도전들을 해결해야 한다. 토인비에 따르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창조적 인물들이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다수의 대중까지 힘을 결집해야 한다. 이때 대중은 일종의 사회적 훈련인 '모방'을 통해 그들의 역할을 수행한다.

물론 모방은 모든 사회의 일반적인 특징으로서 문명을 발생시키지 못한 원시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해 토인비는 모방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방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문명을 발생시키지 못한 원시 사회서 모방은 선조들과 구세대를 향한다. 그리고 죽은 선조들은 살아 있는 연장자의 배후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그 권위를 강화해 준다. 그리하여 이 사회는 인습이 지배하게 되고 발전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대로 모방이 창조적 소수에게로 향하는 사회에서는 인습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문명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04 윗글에 나타난 '토인비의 견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문명은 최적의 도전에 대한 성공적 응전에서 나타난다.
- ② 모방의 존재 여부는 문명의 발생과 성장의 기준이 된다.
- ③ 역사는 국가를 기본 단위로 연구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 ④ 환경의 도전이 강력할수록 그에 대한 응전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난다.
- ⑤ 선조에 기대어 기성세대의 권위가 강화되는 사회는 발전적 변화를 겪는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글 전체의 주제를 바탕으로 견해의 주제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우선 각 문단의 주제를 작성해 보자. 첫째 문단 : 토인비가 문명 중심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가설을 수립함, 둘째 문단 : 토인비가 세운 가설들의 중심축인 '도전과 응전', '창조적 소수와 대중의 모방' 개념, 셋째 문단 : 최적의 도전에서만 성공적인 응전이 나타남, 넷째 문단 : 사회의 창조적 인물들이 새로운 도전들을 해결해야 하고 대중의 모방이 있어야 함, 다섯째 문단 : 모방이 창조적 소수에게로 향해야 문명이 발전함 등이다. 이를 토인비 견해를 중심으로 요약해 보면 '역사 연구의 기본 단위는 문명이며, 최적의 도전에 창조적 소수가 성공적·지속적으로 응전하고 대중의 모방이 창조적 소수를 향할 때 문명은 발생·성장한다.'라 할 수 있다. 이와 가장 유사한 의미는 ①이다.

● **오답 비루기** ② 모방도 두 갈래여서 선조들과 구세대를 향한 모방은 문명을 일으킬 수 없다고 했다. ③ '역사 연구의 기본 단위를 국가가 아닌 문명으로 설정했다.'라는 내용에 어긋난다. ④ '도전의 강도가 지나치게 크면 응전이 성공적일 수 없게 되며, 반대로 너무 작을 경우에는 전혀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최적의 도전에 서만 성공적인 응전이 나타난다'고 했다. ⑤ '문명을 발생시키지 못한 원시 사회서 모방은 선조들과 구세대를 향한다. 그리고 죽은 선조들은 살아 있는 연장자의 배후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그 권위를 강화해 준다. 그리하여 이 사회는 인습이 지배하게 되고 발전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다.

✓ **해답** ①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양 음악에서 기악은 르네상스 말기에 탄생하였지만 바로크 시대에 이르면 악기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장르를 형성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하지만 가사가 있는 성악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에게 기악은 내용 없는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비난을 면하기 위해 기악은 일정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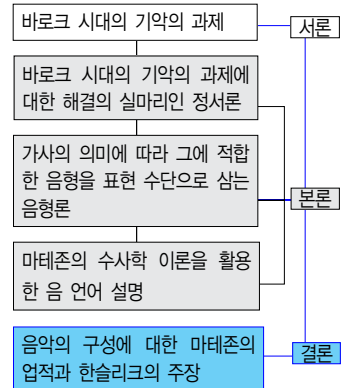
바로크 시대의 음악가들은 이러한 과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정서론’과 ‘음형론’에서 찾으려 했다. 이 두 이론은 본래 성악 음악을 배경으로 태동하였으나 점차 기악 음악에도 적용되었다. 정서론에서는 웅변가가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듯 음악가도 청자들의 정서를 움직여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곡에 하나의 정서만이 지배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연설에서 한 가지 논지가 일관되게 견지되어야 설득력이 있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한편 음형론에서는 가사의 의미에 따라 그에 적합한 음형을 표현 수단으로 삼는데, 르네상스 후기 마드리갈이나 바로크 초기 오페라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바로크 초반의 음악 이론가 부어마이스터는 마치 웅변에서 말의 고저나 완급, 장단 등이 호소력을 이끌어 내듯 음악에서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낳는 장치들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가사의 뜻에 맞춰 가락이 올라가거나, 한동안 쉬거나, 음들이 딱딱 끊어지게 연주하는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바로크 후반의 음악 이론가 마테존 역시 수사학 이론을 끌어들이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음 언어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기존의 정서론을 음악 구조에까지 확장하며 당시의 음조(音調)를 특정 정서와 연결하였다. 마테존에 따르면 다장조는 기쁨을, 라단조는 경건하고 웅장함을 유발한다.

그러나 마테존의 진정한 업적은 음악을 구성적 측면에서 논의한 데 있다. 그는 성악곡인 마르첼로의 아리아를 논의하면서 그것이 마치 기악곡인 양 가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주제 가락의 착상과 치밀한 전개 방식 등에 집중하였다. 이는 가락, 리듬, 화성과 같은 형식적 요소가 중시되는 순수 기악 음악의 도래가 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한 세기 후 음악 미학자 한슬리크는 음악이 사람의 감정을 묘사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음들의 순수한 결합 그 자체로 깊은 정신세계를 보여 주는 것이라 주장하기에 이른다.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 바로크 시대의 기악의 과제를 제시하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하여 정서론과 음형론 및 마테존의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어휘·크리닉

- 견지되어야: 어떤 견해나 입장 따위를 굳게 지니거나 지켜야
- 수사학: 사상이나 감정 따위를 효과적·미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문장과 언어의 사용법을 연구하는 학문

05 위 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 증거를 활용하여 통념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 ② 비유적인 예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반박하고 있다.
- ③ 문제 상황을 소개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어떤 이론이 다양하게 분화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문답 형식으로 화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주된 논지 전개 방식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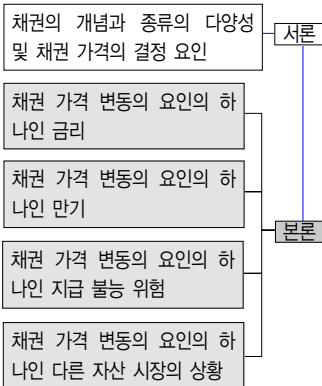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우선 각 문단의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단: 바로크 시대의 기악의 과제, 둘째 문단: 바로크 시대의 기악의 과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인 정서론, 셋째 문단: 가사의 의미에 따라 그에 적합한 음형을 표현 수단으로 삼는 음형론, 넷째 문단: 마테존의 수사학 이론을 활용한 음 언어 설명, 다섯째 문단: 음악의 구성에 대한 마테존의 업적과 한슬리크의 주장. 이로 보아 전체의 주제는 바로크 시대의 기악의 문제점을 해결한 이론과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논지 전개 방식은 ③이 적절하다.

● **오답 배리기** ①, ②, ④, ⑤ 모두 전체의 주제와 무관하다.

✓ **해답** ③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 채권의 개념과 종류를 밝히고 채권 가격 변동 요인을 분석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어휘·클리닉

- 유가 증권: 사법상 재산권을 표시한 증권. 권리의 발생, 행사, 이전이 증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음, 수표, 채권, 주권, 선하 증권, 상품권 따위가 있다.
- 선호한다: 여럿 가운데서 특별히 가려서 좋아한다.

채권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 증권으로, 국채나 회사채 등 발행 주체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채권의 액면 금액, 액면 이자율, 만기일 등의 지급 조건은 채권 발행 시 정해지며, 채권 소유자는 매입 후에 정기적으로 이자액을 받고, 만기일에는 마지막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지급받는다. 이때 이자액은 액면 이자율을 액면 금액에 곱한 것으로 대개 연 단위로 지급된다. 채권은 만기일 전에 거래되기도 하는데, 이때 채권 가격은 현재 가치, 만기, 지급 불능 위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채권 투자자는 정기적으로 받게 될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각각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들의 합계인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채권의 매입 가격을 뺀 순수익의 크기를 따진다. 채권 보유로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할 때는 금리를 반영한다. 가령 금리가 연 10%이고, 내년에 지급받게 될 금액이 110원이라면, 110원의 현재 가치는 100원이다. 즉 금리는 현재 가치에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의 가격도 하락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처럼 수시로 변동되는 시중 금리는 현재 가치의 평가 구조상 채권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채권의 매입 시점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인 만기도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급 조건이 동일하다면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므로 가격 변동의 위험이 크다. 채권은 발행된 이후에는 만기가 점점 짧아지므로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채권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해진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높은 순수익을 기대하므로 액면 이자율이 더 높은 채권을 선호한다.

또 액면 금액과 이자액을 약정된 일자에 지급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위험도 채권 가격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경우, 그 기업은 지급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다.

한편 채권은 서로 대체가 가능한 금융 자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자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가격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가령 주식 시장이 호황이어서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06 위 글의 설명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② 채권의 지급 불능 위험과 채권 가격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고 있다.
- ③ 유사한 원리를 보이는 현상에 빗대어 채권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④ 금리가 채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⑤ 채권의 의미를 밝히고 그 종류를 들고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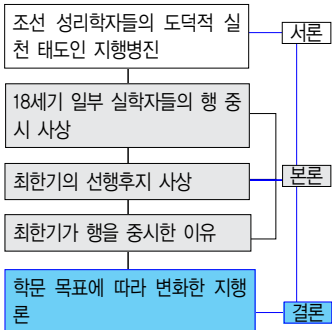
● 문항 분석 부분적인 논지 전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옳다로 정답 찾기 유사한 원리를 보이는 현상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은 비유나 유추의 방법을 말하는데 위 글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은 방법이다.

● 오답 비루기 ① 이는 분석을 일컫는데 위 글에서는 채권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둘째 문단에서 시중 금리를, 셋째 문단에서 만기를, 넷째 문단에서 지급 불능 위험을, 다섯째 문단에서 다른 자산 시장의 상황을 들고 있다. ② 이는 예시를 일컫는데 넷째 문단에 '예를 들어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경우, 그 기업은 지급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구절에 쓰인 설명 방법이다. ④ 이는 인과를 일컫는데 둘째 문단에 '가령 금리가 연 10%이고, 내년에 지급받게 될 금액이 110원이라면, 110원의 현재 가치는 100원이다. 즉 금리는 현재 가치에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의 가격도 하락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구절에 쓰인 설명 방법이다. ⑤ 이는 정의와 분류를 일컫는데 첫째 문단의 '채권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 증권으로, 국채나 회사채 등 발행 주체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라는 구절에 사용된 설명 방법이다.

✓ 해답 ③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 ▶ 조선 성리학자들의 도덕적 실천 태도인 지행병진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행론이 서로 다르게 발전한 이유는 그들의 학문 목표와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어휘·클리닉

- 물리(物理) : 물질의 이치.
 • 사리(事理) : 여기서는 사람 사이의 이치.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조선 성리학자들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지(知)와 행(行)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은 특히 도덕적 실천과 결부하여 지와 행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그 기본적인 입장은 ‘지행병진(知行並進)’이었다. 그들은 지와 행이 서로 선후(先後)가 되어 돕고 의지하면서 번갈아 앞으로 나아가는 ‘상자호진(相資互進)’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만물의 이치가 마음에 본래 갖추어져 있다고 여기고 도덕적 수양을 통해 그 이치를 찾고자 했다.

18세기에 들어 일부 실학자들은 지행론에 대해 새롭게 접근했다. 홍대용은 지와 행의 병진을 전제하면서도, 도덕적 수양 외에 사회적 실천의 측면에서 행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용후생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민생을 풍요롭게 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그에게 지는 도덕 법칙만이 아닌 실용적인 지식을 포함하는 것이었으며, 행이 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었다.

19세기 학자 최한기는 본격적으로 지행론을 변화시켰다. 그는 행을 생리 반응, 감각 활동, 윤리 행동을 포함하는 일체의 경험으로 이해하고, 지를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객관적인 지식으로 규정했다. 그는 선천적인 지식이 따로 없고 모든 지식이 경험을 통해 산출된다고 보아 ‘선행후지(先行後知)’를 제시하고 행이 지보다 우선적인 것임을 강조했다.

최한기에게 지와 행의 대상은 인간·사회·자연을 포괄하는 것이다. 그는 행을 통한 지의 형성, 그 지에 의한 새로운 행, 그리고 그 행에 의한 기존 지의 검증이라는 이전과는 차별화된 지식론을 제시했다. 그가 경험으로서의 행을 중시한 것은 자연 세계에는 일정한 원리인 물리(物理)가 있지만 인간 세계의 원리인 사리(事理)는 일정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자연을 탐구하여 물리를 인식함으로써 사리가 성립되고, 이 사리에서 인간의 사리인 인도(人道)가 나온다고 보았다.

이러한 서로 다른 지행론은 그들의 학문 목표와 관련이 있다. 도덕적 수양을 무엇보다 중시했던 성리학자들과 달리, 실학자들은 피폐한 사회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학문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최한기가 행을 앞세운 것은 변화하는 세계의 본질을 경험적으로 파악하여 격변하는 시대에 대처하려는 것이었다.

07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행 후지의 현대적 의미
- ② 지와 행의 개념과 그 한계
- ③ 도덕규범의 실천과 지행론
- ④ 지행론의 변화와 그 배경
- ⑤ 삶에서의 인식과 실천의 문제

● **문항 분석** 제시된 글의 주제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우선 각 문단의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단 : 조선 성리학자들의 도덕적 실천 태도인 지행병진. 둘째 문단 : 18세기 일부 실학자들의 행 중시 사상. 셋째 문단 : 최한기의 선행후지 사상. 넷째 문단 : 최한기가 행을 중시한 이유. 다섯째 문단 : 학문 목표에 따라 변화한 지행론. 따라서 글 전체의 주제는 다섯째 문단의 주제인 ‘학문 목표에 따라 변화한 지행론’이다.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 것은 ④이다.

● **오답 배리기** ① 제시되지 않은 내용이다. ② 한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③ 중심 화제이나 그 의미를 밝히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 ⑤ 지행론의 상위 개념이어서 너무 포괄적이다.

✓ **해답** ④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음악은 연주를 통해 소리로 표현되는 예술이다. 18세기의 바흐 음악을 현재에도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음악을 전달하고 보존하는 악보가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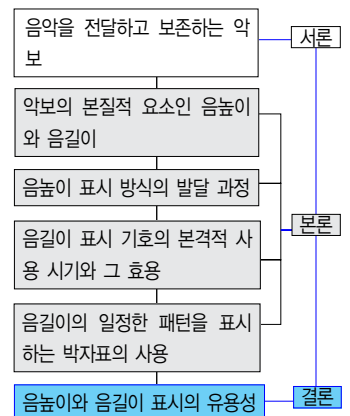
오늘날 악보에서 기본적으로 읽어야 할 기호는 음높이를 나타내는 5선과 음자리표, 음길이를 나타내는 음표와 박자표이다. 음높이와 음길이는 음악이 표현해야 하는 본질적인 요소이다.

선은 음높이를 표시하는 실용적인 기호이다. 그런데 9세기경에는 선을 사용하지 않고 가사 위에 간단한 기호로 음들 간의 상대적인 높낮이를 표시했기 때문에 정확한 높낮이는 재현할 수 없었다. 이후 11세기경부터 2선이나 4선 위에 음을 기록했고, 현재 사용하는 5선 악보는 14세기 무렵에 완성되었다. 또한 11세기경부터 사용된 음자리표는 고정된 음높이를 명시하는 기능을 해, 음의 높낮이를 명확하게 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음길이를 표시하는 기호는 13세기 말 ‘프랑코 기보법’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 기보법에서는 네 종류의 음길이를 정하고, 이를 가장 긴 두플렉스롱가부터 가장 짧은 세미브레비스까지 네 가지의 음표로 표기했다. 이런 길이를 나타내는 음표를 사용하여 음의 장단을 나타내는 리듬의 표현이 다양해 졌다. 특히 다성 음악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이 시기에는 선율들이 서로 다른 리듬으로 구별되었는데, 여러 가지 음길이의 음표는 이를 표시하는 데 유용했다.

이름	두플렉스롱가	롱가	브레비스	세미브레비스
음표	■	■	■	◆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 ▶ 음악을 전달하고 보존하는 악보에 쓰이는 음높이와 음길이표의 사용 기원과 발전 및 그 효용성을 구성 요소별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어휘·클리닉

•삼위일체 : 1. 세 가지의 것이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통합되는 일. 즉 삼일. 2. <기독교>성부(聖父), 성자(聖子), 성령(聖靈)의 세 위격이 하나의 실체인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는 교의.

음길이의 표현인 리듬이 일정한 패턴의 강약을 규칙적으로 반복하면 박자가 형성되며, 이를 표기한 것이 박자표이다. 음악의 흐름에는 강과 약의 박이 있다. ‘강-약’, ‘강-약-약’의 박이 규칙적으로 반복될 때 이것을 묶은 것이 각각 2박자, 3박자이다. 이렇게 규칙적인 박의 묶음을 표시하는 박자의 개념은 새로운 리듬 양상을 보여 주는 14세기에 시작되었다. 14세기 이전까지는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3이라는 수를 ‘완전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음길이를 셋으로 분할하는 완전분할을 사용하였는데, 14세기가 되면서 불완전 분할인 2분할도 동등하게 사용되었다. 이러한 3분할과 2분할은 3박자와 2박자 계통의 기초가 되었다.

이와 같이 음높이는 5선과 음자리표로 정확하게 표시되고 음길이는 음표와 박자표로 다양한 리듬과 규칙적인 박을 보여 주면서, 소리는 악보를 통해 그 의미를 기록하고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08 위 글에서 사용한 글쓰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에 대한 기존의 관점과 새로운 관점을 대조하여 진술한다.
- ②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다.
- ③ 대상의 유용성과 한계를 지적하여 새로운 전망을 제시한다.
- ④ 권위 있는 문헌을 인용하여 내용의 타당성을 강화한다.
- ⑤ 대상의 형성과 발달 과정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한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문단의 주제를 바탕으로 진술 방식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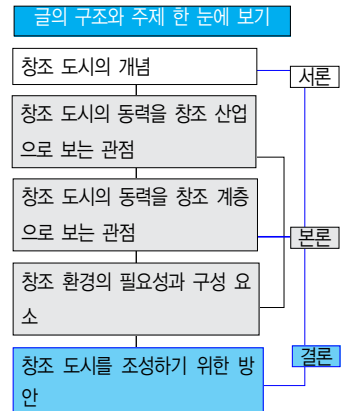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우선 각 문단의 주제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단 : 음악을 전달하고 보존하는 악보. 둘째 문단 : 악보의 본질적 요소인 음높이와 음길이. 셋째 문단 : 음높이 표시 방식의 발달 과정. 넷째 문단 : 음길이 표시 기호의 본격적 사용 시기와 그 효용. 다섯째 문단 : 음길이의 일정한 패턴을 표시하는 박자표의 사용. 여섯째 문단 : 음높이와 음길이 표시의 유용성. 이로 보면 위 글은 악보에 사용되는 음높이와 음길이 표시의 사용 시기와 발전 과정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비루기** ①, ②, ③, ④ 모두 전혀 사용되지 않은 진술 방식이다.

✓ **해답** 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최근 들어 도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전략의 하나로 창조 도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창조 도시는 창조적 인재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도시이다. 즉 창조 도시는 인재들을 위한 문화 및 거주 환경의 창조성이 풍부하며, 혁신적이고도 유연한 경제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 도시인 것이다.
- 나) 창조 도시의 주된 동력을 창조 산업으로 볼 것인가 창조 계층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소 엇갈리고 있다. 창조 산업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창조 산업이 도시에 인적·사회적·문화적·경제적 다양성을 불어넣음으로써 도시의 재구조화를 가져오고 나아가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한다고 주장한다. 창의적 기술과 재능을 소득과 고용의 원천으로 삼는 창조 산업의 예로는 광고, 디자인, 출판, 공연 예술, 컴퓨터 게임 등이 있다.
- 다) 창조 계층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개인의 창의력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 계층이 모여서 인재 네트워크인 창조 자원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도시는 경제적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창조 계층을 끌어들이고 유지하는 것이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관건이 된다. 창조 계층에는 과학자, 기술자, 예술가, 건축가, 프로그래머, 영화 제작자 등이 포함된다.
- 라) 창조성의 근본 동력을 무엇으로 보든, 한 도시가 창조 도시로 성장하려면 창조 산업과 창조 계층을 유인하는 창조 환경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창조 도시에 대한 논의를 주도한 랜드리는, 창조성이 도시의 유전자 코드로 바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적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개인의 자질, 의지와 리더십,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과의 접근성, 조직 문화, 지역 정체성, 도시의 공공 공간과 시설, 역동적 네트워크의 구축 등이 그것이다.
- 마) 창조 도시는 하루아침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추진 과정에서 위험이 수반되기도 한다. 창조 산업의 산출물은 그것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와 가치 평가를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창조 계층의 창의력은 표준화되기 어렵고 그들의 전문화된 노동력은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창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 고유의 특성을 면밀히 고찰하여 창조 산업, 창조 계층, 창조 환경의 역동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밝혀낼 필요가 있다.



▶ 창조 도시의 개념을 밝히고 그 동력을 서로 다른 두 관점으로 제시하고 창조 환경의 필요성과 구성 요소를 소개한 다음 창조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어휘·클리닉

- 제고하는 : 이끌어 올리는.
- 역동적 : 힘차게 움직이는.

09 (가)~(마)의 중심 화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창조 도시의 개념
- ② (나): 창조 도시의 동력을 창조 산업으로 보는 관점
- ③ (다): 창조 도시의 동력을 창조 계층으로 보는 관점
- ④ (라): 창조 환경의 필요성과 구성 요소
- ⑤ (마): 창조 도시의 문제점과 전망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각 문단의 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마)의 주제문은 '따라서 창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 고유의 특성을 면밀히 고찰하여 창조 산업, 창조 계층, 창조 환경의 역동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밝혀낼 필요가 있다.'라는 문장이므로 중심 화제는 '창조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 **오답 바꾸기** ① (가)의 주제문은 '창조 도시는 창조적 인재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도시이다.'라는 문장이므로 적절하다. ② (나)의 주제문은 '창조 산업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창조 산업이 도시에 인적·사회·문화·적·경제적 다양성을 불어넣음으로써 도시의 재구조화를 가져오고 나아가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한다고 주장한다.'라는 문장이므로 적절하다. ③ (다)의 주제문은 '창조 계층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개인의 창의력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 계층이 모여서 인재 네트워크인 창조 자본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도시는 경제적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게 된다고 본다.'라는 문장이므로 적절하다. ④ (라)의 주제문은 첫째 문장과 둘째 문장의 내용을 종합하여 '한 도시가 창조 도시로 성장하려면 창조 산업과 창조 계층을 유인하는 창조 환경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환경적 요소들이 필요하다.'라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예답**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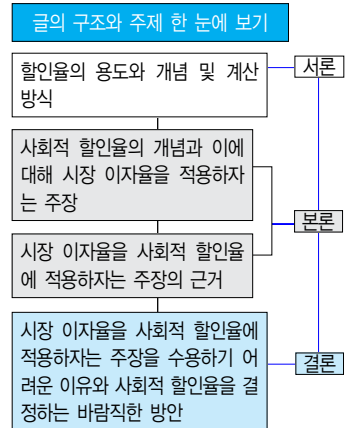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부나 기업이 사업에 투자할 때에는 현재에 투입될 비용과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비교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한다. 이 경우 물가 상승, 투자 기회,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할인의 요인을 고려하여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후, 비용과 이익을 공정하게 비교해야 한다. 이러한 환산을 가능케 해 주는 개념이 할인율이다. 할인율은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역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올해의 10억 원은 내년에는 $(1+0.1)$ 을 곱한 11억 원이 되듯이, 할인율이 연 10%라면 내년의 11억 원의 현재 가치는 $(1+0.1)$ 로 나눈 10억 원이 된다.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할 때에는 대개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공적 차원의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한다. 사회적 할인율은 사회 구성원이 느끼는 할인의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시장 이자율은 저축과 대출을 통한 자본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다.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원금을 시장 이자율에 의해 미래에 더 큰 금액으로 볼릴 수 있고,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시장 이자율만큼 대출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이때의 시장 이자율은 미래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의 할인율로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회적 할인율로 간주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편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공사업에 투입될 자본이 민간 부문에서 이용될 수도 있으므로,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에서만 높은 수익률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공공 부문의 수익률이 민간 부문만큼 높다면,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문에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이, 비교적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반면에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은 일반적으로 그 이익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사업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념을 반영한다. 만일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처럼 높게 적용된다면, 미래 세대의 이익이 저평가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할인율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할인율의 개념과 용도를 소개하고 시장 이자율을 사회적 할인율로 하자는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밝힌 다음 이익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어휘·클리닉

- ▶ 타당성 : 사물의 이치에 맞는 옳은 성질.

10 위 글의 글쓰기가 상정하고 있는 핵심적인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장 이자율과 사회적 할인율은 어떻게 관련되는가?
- ② 자본 시장에서 미래 세대의 몫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가?
- ③ 사회적 할인율이 민간 자본의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④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은 어떤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가?
- ⑤ 공공 부문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과 어떻게 경쟁해야 하는가?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주제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질문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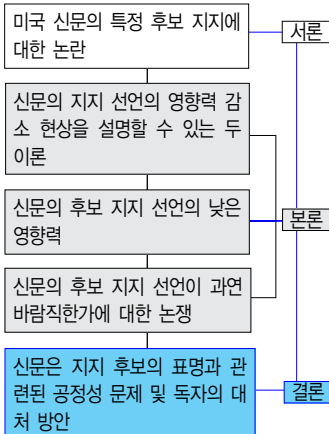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우선 각 문단의 주제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단 : 정부나 기업이 사업에 투자할 때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하는 할인율의 개념과 그 예. 둘째 문단 : 사회적 할인율의 개념과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의 제기. 셋째 문단 :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의 배경. 넷째 문단 :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와 사회적 할인율을 결정하는 바람직한 방안. 이로 보면 전체의 주제는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와 사회적 할인율을 결정하는 바람직한 방안'이다. 이러한 주제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질문은 ④이다.

● **오답 바꾸기** ①, ②, ③, ⑤ 모두 글 전체의 주제를 이끌어 낼 수 없는 내용이다.

✓ **해답** ④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미국의 많은 신문은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전통적으로 이 신문들은 후보의 정치적 신념, 소속 정당, 정책을 분석하여 자신의 입장과 같거나 그것에 근접한 후보를 선택하여 지지해 왔다. 그러나 근래 들어 이 전통은 적잖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신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실제로 영향력이 있는지, 또는 공정한 보도를 사명으로 하는 신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가 과연 바람직한지 등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신문의 특정 후보 지지가 유권자의 표심(票心)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1958년 뉴욕 주지사 선거에서 『뉴욕 포스트』가 록펠러 후보를 지지해 그의 당선에 기여한 유명한 일화가 있긴 하지만, 지지 선언의 영향력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 현상은 '선별 효과 이론'과 '보강 효과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선별 효과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미디어 메시지에 선택적으로 노출되고, 그것을 선택적으로 인지하며, 선택적으로 기억한다. 예를 들면, '가'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은 '가' 후보의 메시지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그것의 부정적인 면만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보강 효과 이론에 따르면, 미디어 메시지는 개인의 태도나 의견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기존의 태도와 의견을 보강하는 차원에 머무른다. 가령 '가' 후보의 정치 메시지는 '가'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시키지만, 그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태도를 강화시킨다. 이 두 이론을 종합해 보면, 신문의 후보 지지 선언이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문의 후보 지지 선언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후보 지지 선언이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논쟁의 핵심 내용이다. 이런 논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신문의 특정 후보 지지가 언론의 권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쟁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선거에서는 후보에 대한 독자의 판단을 선점하려는 비민주적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정치 세력이 신문의 후보 지지 선언을 정치 선전에 이용하는 문제점 또한 이에 대한 비판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신문이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신문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는 행위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보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 따라서 신문은 지지 후보의 표명이 보도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지 신중하게 따져 보아야 하며, 독자 역시 지지 선언의 함의를 분별할 수 있는 혜안을 길러야 할 것이다.

미국 신문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에 대하여 그것의 낮은 영향력을 설명할 수 있는 두 이론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신문의 공정성 유지를 주장한 후 독자의 올바른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어휘·클리닉

- 지지 : 어떤 사람이나 단체 따위의 주·정책·의견 따위에 찬동하여 이를 위하여 힘을 씀. 또는 그 원조.
- 표심 :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마음.
- 인지하다 :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알다.
- 함의 : 말이나 글 속에 어떠한 뜻이 들어 있음. 또는 그 뜻.
- 혜안 : 사물을 꿰뚫어 보는 안목과 식견.

11 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을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 ㄱ. 사례를 든 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 ㄴ. 이론을 활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ㄷ. 상반된 두 주장을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 ㄹ. 통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이론을 주장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글 전체를 구성하는 논지 전개 방식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 정답 찾기 우선 각 문단의 주제문을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단 : 미국의 많은 신문이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전통은 적잖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둘째 문단 : 신문의 지지 선언의 영향력이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은 '선별 효과 이론'과 '보강 효과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셋째 문단 : 선별 효과 이론과 보강 효과 이론을 종합

해 보면 신문의 후보 지지 선언이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문단 : 신문의 후보 지지 선언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다섯째 문단 : 신문은 지지 후보의 표명이 보도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지 신중하게 따져 보아야 하며, 독자 역시 지지 선언의 함의를 분별할 수 있는 혜안을 길러야 할 것이다. 이로 보면 첫째 문단에서는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의 사례를 들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으며 둘째, 셋째 문단에서는 선별 효과 이론과 보강 효과 이론을 활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비루기

ㄷ : 대립된 견해를 제시하지 않았다. ㄹ : 새로운 이론을 주장하지 않았다.

✓ 예 답

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① 생명 과학의 기본 개념들 중에서 진화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잘못 이해되고 있는 주제이다. ①우리는 종종 그 주제가 다루지 않는 사실, 그 주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실들을 인식함으로써 그 주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G.K. 체스터튼이 인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과학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다음과 같은 견해에서부터 우리의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예술은 제한이다. 모든 상(像)의 본질은 제한을 가하는 그 틀에 있다.’

- ② 첫째, 진화론을 비롯해서 어떤 과학도 궁극의 기원이나 윤리적 의미라는 주제에는 접근할 수 없다. 하나의 설명 체계로서의 과학은 자연 법칙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 항상 균일하게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 경험 세계의 현상과 규칙성을 발견하고 설명을 가하려 든다. 이 과정에서 가해지는 제한은 매력이 넘치는 무한한 세계를 ‘상(像)’ 속에 한정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틀’과 연관되는 대부분의 주제들은 어떤 경우에도 답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진화론은 우주에서 생명의 궁극적 기원이나 자연의 무수한 대상물들 중에서 생명이 갖는 본질적 중요성을 다루는 학문이 아니다. 이러한 의문은 과학이 아니라 철학 또는 신학의 범주에 속한다. 나는 이러한 의문이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보편적인 답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른 자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또 하나의 주제이다. ‘과학적 창조론자’로 행세하는 열광적인 정통파 그리스도교 신봉자들은 창조론이 진화론과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 하며, 학교에서 똑같은 수업 시간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 주장의 근거로 창조론과 진화론 모두 궁극적으로 미지의 대상을 다룬다는 점에서 똑같이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진화론은 그러한 주제를 전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과학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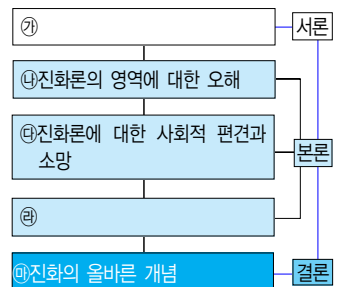


- ③ 둘째, 그 동안 진화론에는 ③커다란 보따리가 지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보따리에는 자연의 사실성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오랜 서구의 사회적 편견과 심리적 소망을 나타내는 개념과 의미들이 하나 가득 들어 있었다. 인간의 깊은 관심사를 다루는 과학 분야에서는 어디서건 이런 식의 ‘보따리’를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간 진화론에 두텁게 덧칠해진 이러한 강한 사회적 색깔이 우리가 다윈의 혁명을 완성시키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했다.

문제해킹

진화론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두려움, 스티븐 제이 굴드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넓기 답

㉡진화에 대한 오해
㉢가장 큰 사회적 편견인 진보

진화론에 집 지워진 편견의 오류를 논박한 다음 진화의 본질을 밝히고 있다.

어휘·클리닉

•체모(體毛) 몸에 난 털.
•국지적인 일정하게 한정된 지역적인.

❶ 이러한 편견 중 가장 치명적이며 사람들에게 큰 강제력을 갖는 것은 진보라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진화가 복잡성의 증진, 생체 역학적으로 보다 나은 설계, 더 큰 용량의 뇌를 가지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려는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 또는 그밖에 자신을 자연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의 가장 높은 위치에 올려놓으려는 인간들의 오랜 열망을 중심으로 하는 — 그리하여 이 지구를 다스리고 개발할 수 있는 천부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 진보에 대한 편협한 규정이다.

❷ 다윈이 체계화한 이론에서 진화란 보편적인 '진보'가 아닌 국지적인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이다. 얼음이 두꺼워지면서 체모(體毛)가 차츰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화해 털이 많은 매머드가 된 코끼리의 계통(系統)은 모든 측면에서 우월한 코끼리로 발전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점점 더 추워지는 국지적인 환경 조건에 좀 더 잘 적응하게 된 것일 뿐이다.

01 필자의 논지를 가장 잘 파악한 사람의 반응은?

- ① 영철 : 진화론의 허상을 빨리 깨달아야 되겠어.
- ② 민규 : 진화론이 종교와 상반된 이론에 속한다는 것이 사실이잖아.
- ③ 병철 : 진화론은 과학의 범주에 들지 않는 학문이란 것을 알게 되었어.
- ④ 순희 : 진화론이 진보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어.
- ⑤ 지용 : 진화론이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지 않아 과학이 된다는 사실이 놀랍구만.

02 발상과 표현이 ㉠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한의학을 배우고 싶으면 한문부터 알아야 된다.
- ② 강물의 깊이를 재려면 긴 잣대를 활용하면 된다.
- ③ 진리를 추구하려면 진리의 샘으로 들어가 봐야 된다.
- ④ 산의 형세를 알고 싶으면 산 밖 멀리서 바라보아야 된다.
- ⑤ 우주의 발생에 대해 알려면 그와 관련된 이론을 공부해야 된다.

03 ㉠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아닌 것은?

- ① 다윈의 혁명
- ② 인간의 독보적 우월감
- ③ 발전적 방향으로의 변화
- ④ 서구 사회의 심리적 소망
- ⑤ 지구를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의 천부적 권리

04 다음 〈보기〉의 글로 논지를 보강할 수 있는 단락은?

| 보 기 |

자신이 처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복잡성을 더하게 된 모든 종(種)의 경우에서 그 몸의 내부에 살고 있는 여러 종의 기생충을 살펴보자. 이들 기생충들은 대개 숙주에 의존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던 그들의 선조에 비해 해부학적인 면에서 상당히 단순화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숙주가 외부 환경의 필요에 맞춰 진화한 것만큼이나 훌륭하게 숙주의 내부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다.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05 위 글을 읽은 독자가 진화의 예와 그 이유를 적어 보았다. 필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사항만 골라 묶은 것은?

| 보 기 |

- ㄱ. 갈라파고스군도의 핀치새의 부리가 다양하게 변화한 것은 서로 다른 먹이를 잘 먹기 위한 것이었다.
- ㄴ. 선인장의 잎이 가시로 변한 것은 선인장에 안에 있는 요인의 계획적 발현에 의한 것이었다.
- ㄷ. 인간의 꼬리가 없어진 것은 직립 보행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 ㄹ. 부엉이의 시력이 나빠진 것은 밤 활동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 ① ㄱ - ㄴ ② ㄱ - ㄷ
- ③ ㄱ - ㄹ ④ ㄴ - ㄷ
- ⑤ ㄴ - ㄹ



[유형모의 1-1]

01 ⑤ 02 ④ 03 ① 04 ⑤ 05 ③

문단의 주제 넣기 모범 답안 : ㉞진화에 대한 오해
㉞가장 큰 사회적 편견인 진보

01 ⑤

● 문항 분석 주제를 파악하고 이와 동일한 반응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우선 각 문단의 주제문을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생명 과학의 중요 개념인 진화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하여 과학을 부정하는 견해에서 진화를 생각해 보자. (나) 진화론은 궁극의 기원이나 윤리적 의미라는 주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과학이다. (다) 진화론에는 서구의 사회적 편견과 심리적 소망이 가득 들어 있어 다윈의 혁명을 완성시키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했다. (라) 진화론에 집 지워진 편견 중 가장 치명적이며 사람들에게 큰 강제력을 갖는 것은 진보라는 개념이다. (마) 진화란 보편적인 '진보'가 아닌 국지적인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의 주제문을 작성하면 "진화론은 궁극의 기원이나 윤리적 의미라는 주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과학이며 진화란 보편적인 '진보'가 아닌 국지적인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이다."이라 할 수 있다. ⑤는 이 주제문의 전반부의 내용에 부합된 반응이다.

● 오답 배리기 ①, ②, ③, ④ 모두 논지와 상반된 반응이다.

02 ④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㉞을 일반화시키면 '어떤 대상을 멀리서 혹은 상반된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것을 잘 알 수 있게 된다.'라는 주장이 된다. ㉜도 일반화시키면 '대상을 벗어나 멀리서 바라보면 그것을 잘 알게 된다.'라는 주장이 되어 ㉞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 오답 배리기 ①, ⑤를 일반화시키면 '대상을 알려면 그것과 관련된 도구를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된다. ②를 일반화시키면 '대상을 알려면 그것과 관련된 도구가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된다. ③을 일반화시키면 '대상의 본질을 알려면 핵심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된다.

03 ①

● 문항 분석 어휘의 문맥적 의미가 아닌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㉞과 관련된 '그러나 그간 진화론에 두렵

게 덧칠해진 이러한 강한 사회적 색깔이 우리가 다윈의 혁명을 완성시키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했다.'라는 구절로 볼 때 '이러한 강한 사회적 색깔이 ㉞의 의미지 '다윈의 혁명' 자체는 ㉞의 의미가 아니다.

● 오답 배리기 ②는 '그밖에 자신을 자연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의 가장 높은 위치에 올려놓으려는 인간들의 오랜 열망'라는 구절의 의미를 바꿔 말한 것이다. ③은 '이러한 편견 중 가장 치명적이며 사람들에게 큰 강제력을 갖는 것은 진보라는 개념이다.'에 들어 있는 '진보'의 의미이다. ④는 '그리고 그 보따리에는 자연의 사실성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오랜 서구의 사회적 편견과 심리적 소망을 나타내는 개념과 의미들이 하나 가득 들어 있었다.'라는 구절에 드러난 의미이다. ⑤는 '그리하여 이 지구를 다스리고 개발할 수 있는 천부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 진보에 대한 편협한 규정이다.'라는 구절에 드러난 의미이다.

04 ⑤

● 문항 분석 논거를 바탕으로 한 주장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보기>에서는 단순화된 것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는 기생충의 사례를 들고 있다. (마)의 '얼음이 두꺼워지면서 체모(體毛)가 차츰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화해 털이 많은 매머드가 된 코끼리의 계통(系統)은 모든 측면에서 우월한 코끼리로 발전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점점 더 추워지는 국지적인 환경 조건에 좀 더 잘 적응하게 된 것일 뿐이다.'라는 구절도 환경에 적응한 것이 진화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보기>는 (마)의 사례가 된다. 따라서 ⑤가 적절하다.

● 오답 배리기 ①, ②, ③, ④ 모두 <보기>의 일반적 의미인 단순화되더라도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진화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05 ③

● 문항 분석 논지와 일치하는 사례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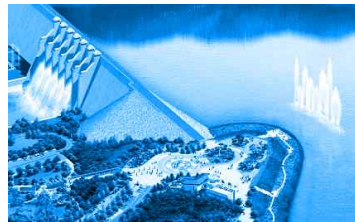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위 글에서 필자는 (마)에서 진화의 개념을 '진보'가 아닌 국지적인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이라 밝히고 (라)에서 진보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려는 추진력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다. ㄱ도 생존을 위한 적응으로 표현하고 있고 ㄴ도 환경에 대한 적응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오답 배리기 ㉞의 계획적 발현이라는 말은 필자의 태도와 상반된 내용이다. ㄴ의 준비라는 말은 의도적이라는 뜻이므로 필자의 태도와 상반된 내용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①한국의 미래상에 관한 청사진은 여러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일반의 지혜, 그리고 소망 등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공동의 작품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전제로 한다면, 그것을 어떤 개인 단독의 힘으로 작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개인이 할 수 있는, 또 해야 할 일은 이 공동의 과제에 참여하여 다소의 힘을 보태는 일이다.

②한국의 미래상을 위한 청사진에 관해서 처음부터 광범위한 찬동을 기대할 수 있는 원안(原案)을 어떤 개인이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의 작업은 많은 논쟁의 과정을 겪어야 할 것이며, 제창과 부정, 그리고 종합의 변증법적 연구를 거듭해야 할 것이다. 이 자리에서 필자가 시도할 수 있는 것도 그러한 논쟁을 위한 말문을 여는 일을 넘어서기 어렵다.



③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과정은 미래 한국을 위한 청사진의 ①윤곽 또는 원칙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일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올바른 실현을 당면의 목표라고 가정한다. 물론, 이것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며, 바로 이 큰 쟁점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자유 민주주의’의 선택이 재론의 여지가 있는 하나의 안(案)이라는 단서(但書) 아래, 필자는 이제 자유 민주주의를 전제로 한 청사진의 윤곽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④내일을 위한 청사진의 윤곽을 그리고자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장차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을 정립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확립하고자 하는 제도의 구조를 밝히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다. 첫째 방법은 궁극적 목적이 정립되면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한 제도의 문제는 제반 여건에 따라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둘째 방법은 우리가 실현해야 할 궁극적 목적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그 실현을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의 확립이 근본적이라는 견해에 입각한 것이다. 궁극적 목적의 정립과 제도의 확립 가운데에서 어느 편을 더 중요하게 보느냐 하는 관점의 차이는 중요한 분기점(分岐點)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첫째 방법에 따라서, 내일의 한국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윤곽을 밝히는 일에 우선 주력할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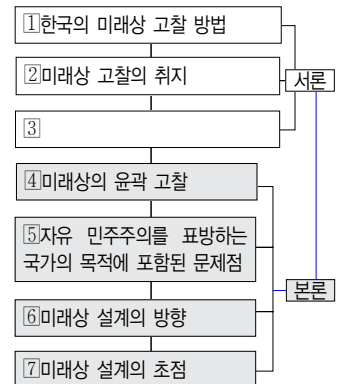
⑤자유 민주주의의 길을 택한 이상 우리 목적의 윤곽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을지 모르나, 필자는 바로 이 목적의 문제를 다시 고찰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추구되는 목적이 있고, 한국인 가운데에도 그러한 추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나, 바로 이 일반적으로 추구되는 목적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⑥오늘날, 자유 민주주의의 나라 사람들이 가장 흔히 추구하는 목적은 돈과 쾌락

문제해답

민주주의 한국의 청사진, 김태길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넣기 답

- ⑥미래상 설계의 방향
- ③미래상 설계의 전제

▶ 민주주의 한국의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될 사항을 상위 범주에서부터 구체적인 범주로 내려오면서 자세하게 고찰하고 있다.

어휘·클리닉

- 청사진(靑寫眞) 어떤 사물에 대한 ‘설계도·미래상’ 등을 상징하여 이르는 말.
- 찬동(贊同) 찬성하여 뜻을 같이함.
- 관존민비(官尊民卑) 관리는 높고 귀하며 백성은 낮고 천하다는 사고 방식.

이며, 한국과 같이 관혼 민비의 전통을 가진 나라에서는 외면적 가치에 속하는 권력과 지위가 여기에 추가된다. 외면적 가치를 내면적 가치보다도 선호하는 가치 풍토에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 외면적 가치의 실현을 개인의 최고선(最高善)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쟁이 치열한 외면적 가치를 삶의 궁극적인 목적처럼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에서는 사회적 협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외면적 가치를 획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풍요로운 물질 생활을 토대로 개인들의 쾌락을 극대화하는 것을 미래 한국의 기본 목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㉗ 자유 민주주의는 개인주의적 인간관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미래의 한국을 통하여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집단적 국가 목표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개인들의 삶의 목표에 초점을 두고 생각하는 편이 사리에 맞을 것이다. 전체로서의 국가 목표와 국가를 형성하는 개인들의 삶의 목표를 지나치게 구별해서 생각하는 데는 무리가 따를 염려가 있으나, 청사진을 그리는 순서로서는 개인들의 삶의 목표에 일차적 중점을 두는 편이 우리들의 경우에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㉘ 《국가나 사회 그 자체에는 목적 의식이 없으므로, 국가나 사회 전체의 목적이 먼저 정해지고, 개인은 전체의 목적 실현을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국가나 사회를 개인들의 사생활을 돕기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보는 것도 우리의 견해가 아니다. 자아의 실현이 개인의 삶의 설계 안에서 귀중한 목적의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듯이, 참으로 민주적이며 공정한 사회의 건설도 개인들의 삶의 설계 안에서 그 자체가 귀중한 목적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01 위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한국 사회 제도의 개선 방향
- ② 개인과 국가의 바람직한 관계
- ③ 한국 사회와 내면적 가치의 중요성
- ④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청사진의 윤곽
- ⑤ 한국 미래의 궁극적 목적 탐색과 개인의 위상

02 밑줄 친 ㉠과 바꿔 쓸 수 없는 것은?

- ① 골격(骨格) ② 근간(根幹)
③ 근본(根本) ④ 대강(大綱)
⑤ 대안(代案)

03 밑줄 친 ㉠에 드러난 태도에 대하여 필자가 경계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나타내는 것은?

- ①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한다.
- ② 고양이 쥐 사정 보듯 한다.
- ③ 눈먼 말 위낭소리 따라간다.
- ④ 포수 집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 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고 한다.

04 ㉡ 〈 〉에 사용된 추론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추론한 것은?

- ① 두발, 용모, 복장 등에 있어서 우리의 자유는 침해당하고 있어. 우리 모두 이러한 자유가 관철될 때까지 시위를 벌여 나가자.
- ② 요즘 법으로 금지된 벽면 낙서 문화가 유행하고 있어. 두어 군데라도 허용해 주어 도시 전체를 어지럽히지는 않게 하는 것이 좋겠어.
- ③ 자유로운 과외가 실현되고부터 사교육비가 너무 증가하고 있어 부모님들이 고생이야. 이럴 때는 과외를 법으로 금하는 것이 훨씬 나아.
- ④ 학생들에게는 야간 통행 금지를 실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어른들이 제법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야간 통행 금지를 실시해야 돼.
- ⑤ 특기 적성 교육 실시가 뭐가 잘못되었다고 그만해야 된다는 거야. 그것보다 더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강제 자율 학습은 내버려두고 말야.

05 위 글의 내용을 바르게 파악한 사람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수 :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겠어.
- ② 지민 : 자유 민주주의보다 좋은 제도가 현재로선 없다고 봐야겠어.
- ③ 고은 : 국가나 사회가 자유 의지를 지닐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
- ④ 주연 : 자유 민주주의란 중지(衆智)를 모아야 이룰 수 있는 제도란 말이지.
- ⑤ 복희 : 한 개인이 많은 사람의 뜻에 부합될 수 있는 제도를 제시하기란 어려울 거야.



[유형모의 1-2]

01 ⑤ 02 ⑤ 03 ③ 04 ② 05 ②

문단의 주제 넣기 모범 답안 : ⑥미래상 설계의 방향
③미래상 설계의 전제

01 ⑤

● 문항 분석 글의 주제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우선 각 문단의 주제를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단 : 한국의 미래상 수립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도입), 둘째 문단 : 한국의 미래상 수립에서 필자가 하고자 하는 일(도입), 셋째 문단 : 한국의 미래상의 윤곽 고찰(도입), 넷째 문단 : 한국 미래의 궁극적 목적의 윤곽 고찰(도입), 다섯째 문단 : 한국 미래의 궁극적 목적의 윤곽 고찰의 중요성(부연), 여섯째 문단 : 외면적 가치 선호의 문제점(부연), 일곱째 문단 : 한국 미래상 정립에 있어서 개인과 국가의 위상 관계 설정(주지). 이로부터 전체 주제는 ⑤라 할 수 있다.

● 오답 바꾸기 ①은 언급된 내용이 아니다. ②, ③은 부분적인 내용에 불과하다. ④는 범위가 너무 크다.

02 ⑤

● 문항 분석 어휘의 문맥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①은 대체적인 모습, 주요한 형틀 등의 의미이다. ⑤는 바꿔 쓸 수 있는 안(案) : 제안, 방안의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바꾸기 ①, ②, ③, ④ 모두 사전적 의미가 ①과 같다.

03 ③

● 문항 분석 제시된 구절에 드러난 필자의 태도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①에서 필자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남들이 하는 것을 덩달아 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는 ③이다.

● 오답 바꾸기 ①은 구렁이가 담을 넘어가듯 슬그머니 얼버무리고 지나가는 것을 뜻한다. ②는 속으로는 해칠 생각이면서 겉으로는 생각해 주는 체한다는 뜻이다. ④는 큰 세력을 믿고 주체넘게 날뛰는 의미이다. ⑤는 고슴도치 새끼의 털은 어미처럼 바늘같이 뾰뾰하건만, 그 어미는 제

새끼의 털이 보드랍고 반지르르하다고 여긴다는 뜻에서, 자기 자식의 나쁜 점은 모르고 도리어 자랑한다는 뜻이다.

04 ②

● 문항 분석 제시된 구절의 추론 방식을 알아내고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추론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에서는 ‘개인이 사회보다 우선이다.’라는 견해와 ‘사회가 개인의 종속물이다.’라는 두 견해를 대립시키면서 개인과 사회를 동등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용된 추론 방식은 변증법이다. ㉡에서도 ‘낙서는 불법이다.’라는 주장과 ‘낙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자.’라는 주장을 내재적으로 대립시키면서 일부 허용하자는 변증적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 오답 바꾸기 ①, ③, ④, ⑤ 모두 논박에 해당한다. 논박이란 잘못된 것을 공격하여 말함을 뜻한다.

05 ②

● 문항 분석 필자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여 반응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본고에서는 ‘자유 민주주의’의 선택이 제론의 여지가 있는 하나의 안(案)이라는 단서(但書) 아래, 필자는 이제 자유 민주주의를 전제로 한 청사진의 윤곽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②는 필자의 의도와 무관한 반응이다.

● 오답 바꾸기 ① ‘외면적 가치를 내면적 가치보다도 선호하는 가치 풍토에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주장과 관련된 반응이다. ③ ‘국가나 사회 그 자체에는 목적 의식이 없으므로, 국가나 사회 전체의 목적이 먼저 정해지고, 개인은 전체의 목적 실현을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주장과 관련된 반응이다. ④ ‘우리가 민주주의를 전제로 한다면, 그것을 어떤 개인 단독의 힘으로 작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주장과 관련된 반응이다. ⑤ ‘한국의 미래상을 위한 청사진에 관해서 처음부터 광범위한 찬동을 기대할 수 있는 원안(原案)을 어떤 개인이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주장과 관련된 반응이다.